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47 1981년6월2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June 23.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무허가 신학교 무더기 정리

110개교를 폐쇄

"무자격 교수가 무자격 학생에게 학위"

(서울23일=연합)한국정부는 23일「신학교육 쇄신방안」에 따라 110개의 무허가 신학교를 폐쇄하고 7개교를 정식 신학교로 인가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이 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현존 신학교의 입학 정원을 증가하고 학교당국이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정을 받는 신학교는 34개교이다.

문교당국자는 이번 쇄신방안은 신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직자의 자질을 향상, 국민의 정신·종교 생활을 건전하게 지도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폐쇄통고를 받은 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운영하지만신입생은 받지 못한다. 무허가 신학교는 장로교 85개, 감리교 10개, 천주교 1개, 침례교 5개, 오순절교 8개, 기타 8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무자격 교수들을 고용, 교회 지하실 등에서 무자격 학생들을 가르쳐 많은 부적격 성직자를 양성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들은 또 등록금을 더 내는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남발, 대중을 정신 및 종교적으로 오도했다고 문교부는 밝혔다.

이규호문교장관 토론토방문 취소

(서울) 이규호문교장관은 9일 토론토에 도착할 예정을 취소, 10일 워싱톤과로 스엔젤리스를 거쳐 귀국한다고 발표했다.

미항공 마비 직전 관제사 타협성공

(워싱턴)미정부는 만7천여명의 항공 관제사들과의 협상에서 22일 잠정적인 타협을 봄으로써 미국전역의 항공여행을 마비시킬뻔한 관제사 스트라이크를 가까스로 면했다.

관제사들은 임금인상등 처우개선을 요구,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해 왔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주40시간근무에 평균 연봉 34,000달러를 받아왔다.

이탤리언 박사가 고소제기 박사학위 차별당했다고

해밀턴 거주의 한 이탤리언 화학박사가 국립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를 인권유린혐의로고소했다.

맥마스터대학의 강사인 피에로·볼드리니(49)씨는 80년9월 NRC가낸 연구원 모집광고를보고 원서를 냈으나 자기의 박사학위가 최근의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합치 못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볼드리니씨는 1958년 이탈리아의 파르마대학에서 화학박사학위를 받았다.

NRC의 연구원 모집광고는 연령에는 제한을두지 않고 봉급은 경력에따라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볼드리니씨는 거절통지를받고 다시 NRC위원장인 라르킨·커원씨에게 직접 원서를 낸 결과 커원씨로부터 NRC가 애초에보낸 거절통지가 마치 단순히 연령때문인것 같은인상을 주었지만 실제 볼드리니씨가 거절된 이유는 그의 과학적인 경력이 요구조건에 적합치 않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개팀이 각축 4일 한인회 야구대회

토론토한인회(회장 강우석)의 연례행사인 한인친선야구대회가 4일(토)상오 9시 12개팀이 출전(예정)한 가운데 코로네이션파크구장에서 열린다.

마감일까지 출전 신청한 팀은 임마누엘교회, 천주교회 A팀, B팀, 에덴침례교회, 해병동지회, 파틴, 청솔회, 벧엘교회, 한인교회, 토론토대학생팀, 연합교회 A팀, B팀의 12개단체이다.

작년도 우승은 연합교회팀이었다.

◇존·맥켄로가 심판에 불만, 분함을 참지못해 자기 라켓을 발로 꺾고있다.

윔블던 테니스대회 개막

초반부터 흥미진진,보그는 36번 연승기록

(런던) 22일 런던에서 개막된 윔블던 남자테니스프로 선수권대회는 서막부터 흥미롭다.

작년도 챔피언인 비욘·보그는「윔블던대회 초반에 약하다」는 징크스대로 첫 상대인 미국의 피터·레너트와의 게임에서 1세트에 만도 다섯번의 서브·더블·폴트를 내는등 고전했다. 그러나 보그는 7대6, 6대3, 6대1로 레너트를 눌렀고 이로써 그는 윔블던대회 36번 연승을 기록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게임은 존·맥켄로와 톰·굴리킨과의 대전.

맥켄로는 이 게임중 심판에 불만, "바보같은 놈, 쓰레기보다 못한 놈" 이란 욕설을 퍼부었다. 한때 그는 주심을 만날 것을 요구, 경기를 중단시키고 주심이 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주심이 오자 주심에도 모욕을 주었다.

그것으로도 분통이 안풀린 맥켄로는 급기야 그의 라켓을 발로 꺾다가 차 던져버렸다.

맥켄로는 성질은 못 눌렀지만 게임은 눌러 7대6, 7대5, 6대3으로 이겼고,후에 사과했으나 이 문제는 23일 있을 대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의 이반·랜들과 호주의 찰리·펜커트의 대전도 흥미. 렌들은 최근의 프렌치·오픈경기 결승에서 비욘·보그로 하여금 6대4, 3대6, 4대6, 6대1, 3대6으로 힘겹게 이기도록 만든 만만찮은 선수이다.

무명의 팬커트는 강자끼리 초반부터 맞붙지 않게 하기 위해 제1회전에 나설 자격심사를 위한 경기를 갖는 대회의 진행에 따라 렌들과 가진 예선경기에서 그를 눌러 버렸다. 시합중렌들은 몇번 실수를 했고 만만찮은 힘과 끈질긴 수비로 대결하는 펜커트에 끝내 꺾이고 말았다.

내무부 인사단행

대구·인천시장등

【서울 연합통신 본지사특약】정부는 [illegible] 이상회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산림청장에,김형배 내무부 지방 행정국장을 내무부기획관리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또한 대구시장에는 정채진 내무차관보를,인천시장에는 김찬호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을 7월1일부로 임명했으며 이상연 정무담당장관보좌역을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에 승진 발령했다.

정부 불신임안 부결

자유당은 중도좌파로 전환

온타리오주 자유당의 스튜어트·스미스당수가 제기한 현 보수당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22일 66대41로 부결됐다.

스미스당수는 보수당정부가 높은 이자율로인한 경제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냈었다.

스미스당수는 데이비스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고이자율 정책으로 고통당하고있는 주택소유자, 농부, 소기업인들을 구제할 정책을 마련치 못했다고 비난하고 주택소유세를 올리자고 제의했다.

이번 불신임 안에서 마이클·캐시디당수가 이끄는 신민당은 자유당과합세, 가표를던졌으나워낙 숫적으로 다수당인 보수당에밀린 것이다.

한편 스미스 자유당당수는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 가진 연례전당대회에서 자유당의 당정책이 중도좌파노선을 걸을것이라고 선언했다.

22일 의회발언에서 스미스당수는 "온타리오주 도시의 중산층은 이제 10년 이상을 저축해도 집을살엄두를 못 내게 됐고, 집한칸 마련으로 노후보장의 유일한 대책을삼던 온타리오주민들의 희망이 높은 물가 때문에 꺾여버렸다. 정부는 이에대한 책임을 통감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민당의 캐시디당수는 자유당이 좌파노선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것을 비꼬기위해 스미스 당수에게 신민당의 당원증을 주겠노라고 말했다.

◇스미스 자유당 당수

교황 재 입원

허파에 염증우려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계속되는 고열로지난주말 급작히 병원에 재입원했다.

병원측은 교황허파에 염증이 생긴것으로 보고있다.

교황이 다시 입원한 로마의 병원당국은 교황이생명에 지장이 있을정도로위급한 증세는 아니며 이번에는 교황이 약 보름간 입원해 있어야할 것이라고밝혔다.

담당의사 쥬세페·팔란크씨는 "교황의 장 기관에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교황의 나이는 61세이다.

교황은 21일정오 미리녹음된 설교로 성베드로광장에 모인 8천여 신도들과 미사를 보았는데 입원하루전 녹음된 이 설교중 교황의 목소리는 약간 쉬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본국,14·4%로 예금 금리 인상

(서울23일=연합)금융통화위원회는 국민의 저축장려를 위해 오는 1일부터저축예금금리를 14·4%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의 30일 미만 예금이율은 5·5%, 1개월 이상 예금은 12·3%이다.

제1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의 초대

녹음 우거진 청량의 계절. 하시는 사업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일보—토론토사 제정. 한인민족상운영위원회 주최 제1회 한인민족상에 영예의 수상자로 선출된 아래 4씨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복된 자리에 빛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1년 6월27일(토) 상오11시
곳 : 토론토한인회관
(20 Mobile Dr. Tor.)

수상자 : 예술상—박재훈·김용순
공로상—전택균
봉사상—장근수

※식후 다과파티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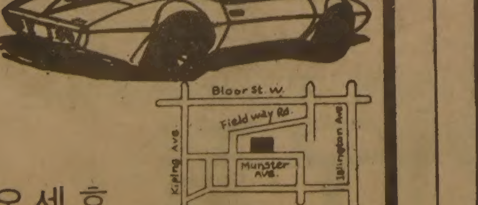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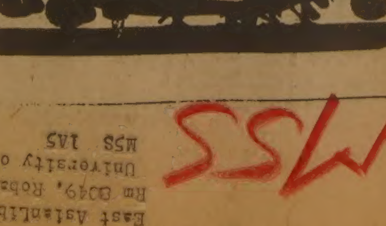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운동구점 개업
여름휴가 특별세일
①GOLF
● Slazenger Golf Shoes Reg. $71(×) 세일가격 $49.00
● Hush Puppies Golf Shoes 세일가격 $36.98
②단체유니폼 마춤
각 동창회및 교회주문 환영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St. Toronto
967-7304 이 건 영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 처리
*완전 차체수리 *페인팅
*사고차량 토잉알선

오세호
(B)231-6951 (R)742-5406
346 Munster Ave. Toronto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지원 전병호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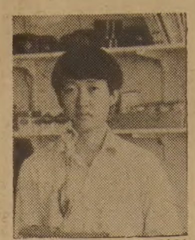
MS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SS 145

이세주 명인 타이틀 방어

본사제정 "명인위"바둑대회서

본사제정<한국일보-토론토>배 쟁탈 제2회 명인전 바둑대회에서 이세주명인은 타이틀을 방어, 2연패했다.

이명인은 명인전 대국(결승)에서 도전자 이정선 1급을 2승1패로 물리쳤다.



◇2연패한 이세주 명인

한국기원 주관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13일까지 보름동안 이세주 초대명인에 대한 도전자 결정리그전에서 제2회(81년도) 최고위(한국기원제정)인 신명철 1급, 이정선 1급, 김윤배 1급, 장영길 1급의 4명이 겨룬끝에 이정선, 김윤배, 장영길씨가각 2승1패, 신명철 최고위는 무승2패로 탈락했다.

제2회전에 접어들어 이정선씨가 2승무패로 명인위 도전권을 획득, 장영길씨가 1승1패, 김윤배씨는 2패로 끝났다.

제2회 명인위 바둑대회 시상식은 오는 27일(토)하오6시 토론토 한국기원(653-A Bloor St.W)에서 거행된다.

부총영사로 승진 박영철 영사

토론토총영사관의 박영철 영사는 지난 19일 부총영사로 승진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에는 부총영사제가 있었으나 토론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부총영사는 이상훈 총영사및 2명의 부영사등과 함께 늘어나는 업무를 잘 처리해 왔다.

박부총영사가 지금까지 맡아온 업무는 25일 도착하는 조용래 영사가 담당한다.

조영사는 서울 본부에서 근무해 왔다.

◇박영철 부총영사

교 민 동 정

◆김신명(선·라이프보험세일즈맨)=최근 보험라이선스를 획득, 한인사회 유일한 여성보험인으로 등장했다.

76년도 캐나다 미스코리아 인기상 수상자이기도한 김씨는 생명보험뿐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모기지보험등 각종 보험을 취급한다고.

74년이민, 3년간 간호원 근무한뒤 부군 김강선씨와 결혼이후 밀크·스토어를 경영해 왔다.

전화번호는 922-3111(B) 439-8885(R)

◇김신명씨

社說 도약대

— 본사의 3대행사

본사는 지금 3대행사를 전후하여 진행중에 있다.

그 하나는 오는 27일 거행되는 본사 제정 제1회한인민족상 시상식이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제정, 올해로 제2회에 접어든 「한국일보-토론토배」쟁탈 명인위 바둑대회의 시상식을 오는 27일 갖게된 일이다.

또한 본사의 일간발행 기념겸 민족상 기금마련을 위한 모국의 인기연예인단토론토 공연도 7월3일로 다가왔다.

한인민족상은 "높이 든 횃불에 빛나는 민족문화"란 표어 그대로 이땅의 수많은 상들 중에서 보다 값지고 보람다운 상이라 하겠다.

기보한 바와 같이 예술상의 박재훈 박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캐나다 한인사회 정상급 음악인일 뿐 아니라, 교회성가대및 한인합창단 지휘면에서 이바지하는바 지대한 예술공헌자이며, 한발 나아가 앞으로 이땅 이민사회를 위한 작곡분야의 정진도 아울러 기대되는 거성급 실력자이다.

같은 예술상의 김용순씨는 고전무용가로서 한인사회 각종행사 출연, 자체공연, 후배양성면에서 활약이 눈부시며, 이곳 타민족들에게 한국의 고전무용·의상미등 문화사절의 구실을 매우 미덥게 하고 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기대는 재래식 무용 전달에 그치지 말고, "서구적 이민사회에 있어서의 한국무용"의 새로운 개발에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공로상 수상자인 전택균씨는 한인이민사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지도급 인사요 영향력이 큰 인격자로서 한인사회 기틀을 잡아준 인물중 한분으로, 이번 그에 대한 시상은 그간의 큰 공적에 대한 "십분의 일"격인 보답이라 하겠다.

그에 대한 교민의 기대는 한인집단을 염려하고 아껴오던 그 심정을 앞으로 가일층 증대시켜, 더 한층 밝고 명랑한 한인사회 건설에 지도적 영향력을 계속 끼쳐달라는 것이다.

봉사상의 장근수 박사는 학술적·과학적 공로가 컸으나, 그보다 더 큰 공헌은 키치너 한인사회 형성에 앞장선 역군이며, 한글학교 설립·운영등에 중추적 구실을 해온 봉사면에서 더 두드러진, 학자이면서 실천적 행동인이기에학술상보다 봉사상에 해당됐다.

장박사께 앞으로 더욱 지역 한인사회 육성·발전에 주추가 되어주는 한편, 교포후배 과학도 양성및 이땅에 한인학자의 우수성 발휘를 당부하는 바이다.

동양고유의 수양적 정신·지능운동인 바둑을 이땅 교포사회와 타민족간에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작년 마련한 명인전 바둑대회를 계기로 다달이 바둑인구가 늘어나고, 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바둑은 건전오락의 범주를 뛰어넘어 인격수양의 정신스포츠 영역에까지 돌입하는 차원 높은 게임이니 동양적 장점인 바둑의 더한층 보급·선양을— 나아가 피부빛깔을 초월한 "명인전 바둑대회"가 캐나다 전국의 거국적 대회로 까지 성장하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모국연예인단의 교포위문쇼 공연은 시간에 쫓기고, 과중한 업무량에 누질린 교포들의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절절한 향수를 달래면서 하룻밤 "민족·조국"이란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비중이 작다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한인민족상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일반 쇼 공연과는 그 의의가 크게 다른 것이니, 일반 교민들도 모처럼의 뜻깊은 민족상 기금마련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높은 견지에서 다수 이 공연에 입장하여 성황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선의의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자문위원 26명 위촉

한인회, 집행진 자문위해

토론토한인회 강우석 회장은 15일 아래 26명 인사를 한인회 자문위원으로위촉했다.

이들은 전임한인회장·이사장을 비롯,학계, 문예계, 종교계, 언론계, 의료계, 사업계등 여러분야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자문위원직을 수락할 경우 한인회집행진의 업무수행에 자문을 담당한다.

구상회, 김지일, 한상훈, 정용승, 이근우, 박희민, 김규석, 이석현, 김창열, 박충도, 황대연, 박인순, 김재광, 김현모, 전태균, 윤여화, 원영신, 이영일, 김대일, 고종옥, 안영신, 이훈모, 조성준, 김명규, 유영린, 홍순관(무순)

모국방문 교포 늘어나

방학 맞아 자녀와 함께, 6·7월 성수기

(NY지사)

각급 학교의 방학을 맞아 모국을 방문하는 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항공 뉴욕지사에 따르면 6월들어 KAL편을 이용해 한국등을 방문하는 승객이 급증, 목·일 주말노선의 경우 최소한 2~3주전에 예약해야 좌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요즘 KAL 뉴욕-서울노선의 평균 좌석점유율은 75% 정도이다.

KAL은 늘어나는 승객들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19일부터 보잉 747 SP 1대를 금요일에 증편, 주4회 뉴욕-서울간을 운행한다.

KAL측은 6,7월은 뉴욕에서 동남아로 나가는 승객이 많고 8월에는 뉴욕에 들어오는 승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작년 이맘때 대한항공은 국내 정치불안등으로 서울항공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승객이 많았다.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로 한국을 방문하는 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여행사에 따르면 6월들어 전가족 혹은 어머니와 자녀가 서울 왕복 항공표를 예약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KAL 뉴욕-서울노선의 전체 승객중 교포승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

중국계 승객이 교포승객수보다 조금 많고 필립핀계와 미국인 승객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노스웨스트, 팬암이 중국계 시장확보를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항공계가 적자로 허덕이자 노스웨스트, 팬암이 중국시장에 세일즈맨을 보내 KAL보다 낮은 요금으로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은 KAL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KAL의 한 판매담당 간부가 말했다.

"짐이 크고 무겁다"

대한항공 승객, 공항 포터 불평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짐이 무거워 이를 취급하는 항공사 직원들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뉴욕지점의 한 직원은 18일 한국이나 필립핀등지를 방문하는 KAL 승객들의 짐이 다른 승객들의 짐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컨베어에서 이를 찾아 자동차까지 옮겨주는 아메리컨 항공사 포터들의 불평이 잦다고 말했다.

승객들은 75파운드 중량의 수화물 2개까지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모처럼 모국을 방문하는 KAL 승객들 중에는 이를 초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AMERICAM AIRLINE 터미날 『LOST AND FOUND』에서 일하는 엔젤로씨는 미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사업 혹은 관광목적으로 여행해 휴대품이 가벼우나 한국등 [illegible] 승객들의 휴대품 [illegible] 많아선지 중량이 [illegible] 가 이를 취급하는 [illegible] 이 짜증을 [illegible] 말했다.

대한항공의 다른 한 [illegible] 원은 필립핀 승객의 [illegible] 한국 승객들의 수화물 [illegible] 더 무겁다고 말했다.

공항직원들은 동남아 승객과 아메리카, 그리스계 승객의 짐이 독일, 불란서등 유럽승객들의 짐에 비해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은퇴후 재혼 늘어

수명 25년 연장등이 원인

(펠라델피아)결혼선서중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부분은 아마도 "은퇴가 우리를 갈라놓을때"로 바뀔지 모른다고 템플대학의 사회학자폴거·스텝 박사가 주장했다.

노인학 전공인 스텝박사는 오늘날 많은 남성·여성들이 80대에까지 수명이연장되자 제2의 결혼상대자를 구하는 일이 마치 제2의 경력을 설계하는 것 같이 현실적으로 여겨지고있다고 말했다.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까지 20여년 같이살던부부가 자식들이 다 큰 뒤에 헤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있다고 스텝박사는 설명했다.

평균수명이 25년이상 늘었다는것이 이혼및 별거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있어 결혼신고서에 싸인하는 젊은사람 들에게는 백년해로에 필요한 높은 직관, 적응력이 결여돼 있다고 스텝박사는 지적했다.

최근 날로 증가하고있는 이혼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결혼한지 몇년되지않아 자식이 어린경우와 20여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그룹이다.

◇초미니학교—프렌치글렌에 있는 한 국민학교서 단 한명의 학생인 도니·에드워즈(7세)군이 역시 단 한명뿐인 선생님 스우·그로스양으로부터 마지막 수업을 받고 있다. 사우스이스턴 오레건 주에 위치한 이 미니학교의 학생은 원래 2명이 었으나 최근에 한 학생의 가족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린 덕분에 도니만 외로이 남게 된 것.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⑰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무역소는 다시열리고 바렌사람들중 살아남은 열두어명의 사냥꾼들은 다시털갈을 찾아서 식량을위한 사냥을 포기했다. 털은 카알한테 가져왔고 싼값으로 매매되었다. 카알은 이들 에스키모에게 동정이나 우정같은것을 갖고있지 않았다. 바렌에 다시와서 살면서 그는그의 죽은부인을 늘 생각했고 그의 외로움을 자식들이 채워주질 못했다. 백인무역자들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똑같은우월감을 자신이 이들 에스키모들한테 느끼게 되는것은 어쩔수가 없었다.

그는 바렌에서사는 사람들을 소멸시키는 악질적인 요소를 이해할려고 하지않았다. 그 자신이 에스키모의 우정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에스키모의 비참한 곤궁에 도움을 주었어야할 때에도 그들을 파괴 시키는 악질노릇을 했다.

상처받은이로 자아를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필요성때문에 프란쯔는 사정없이 소멸되어가는 이들 에스키모의 운명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그의갈등을 추리해 보았다.

그는 에스키모들이 저축에대한 선견지명이 없기때문에 굶을수밖에 없는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게 되었다. 역시 백인들이 그를 업신여긴 것처럼 이들에스키모에 대해서 백인들의 김정을 흉내내었다. 아마도 그는 그의아버지가 늘 그의 에스키모 친구들을 무식한 촌놈들이라고 한말을 흉내냈는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각자는 따로따로 각자의 인생을 살았다. 한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으며 몇일동안 전혀 입을떼지 않는때가 많았다. 각자는 덫을놓는지역이 따로따로 있었고 겨울철에는 서로 만나지않고 온통한달동안 그오두막집에 전혀돌아오지 않는때도 많았다. 그들은 가끔 같은시간에돌아오기도 했지만 잠시각자 돌아오는때는 서로 엇갈리는수가 더 많았다. 외로움이항상 그들을 짓눌렀지만 프란쯔는 내륙태생인 어머니의 강함을 타고났고 또 바렌사람들과 더욱 친근해져서 외로움을 잘 이겨나갔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의 두뇌속의 빈틈을 메우는 광란기를 배겨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을 구상했고 또 여러가지로 모색했으므로 인진이 상상할수있는 북극의극악의 조건을 잘싸워 나갈 수 있었다. 에스키모 사이에서 그는 같은무리로받아들여 졌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쪽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자기 종족에대한 헐리워진 성벽같은 자존심을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바렌사람들이야말로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을 달랠수있는 유일한 방파제였기 때문에 프란쯔는 그의 자존심을 숨겨야 한다. 그는 그들과잘 어울렸지만 그들의 일부는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외로움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다. 외로움은 그를 미치게하고 그의 내부에있는 열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항상 고민에 잠겨서 침착성을 잃게되었다. 그는 윈디베이로부터 멀리멀리 새로운 지역을 헤메며 그의사냥구역을 넓히는 것으로 이외로움을 달래려고 애를썼다. 그러나 프란쯔가 아무리먼곳까지 쉴새없이 돌아다녀봐도 위안은 쉽게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비록그는 그땅에서 사는방법을 배웠고그 땅과다른 여러가지 적의를 품은요소들을 그런대로 거침없이 다루어 나갈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하나의 침입자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못했던 것이다.

Ⅳ.바렌의 어린이들

처음엔 끊임없이 이야기를하던 프란쯔는 시무룩해졌고 겨우 짧은말로 대답하면서 내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을 회피해버렸다. 아마 우리가 첫날 만났을때 너무 떠들어댄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지도 몰랐다. 처음보는 사람한테 자신을 너무 드러 냈다는 술취한 사람이 술이깬다음 느끼는 수치감같은 것을 느꼈는지 모른다. 혹은 그의동생이 너무늦게 돌아오는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도 알수 없었다.

매일아침 캠프 가까이에 있는 멀리 바라다 볼수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동남쪽으로 강을덮은 얼음의 표면이 녹는것을 바라보면서 봄날의 뜨거운 햇볕아래서 몇시간이고 앉아있곤했다. 한스가 돌아올때가 훨씬 지났다. 봄이오기전 한스는 백여마일 떨어진뉴엘턴레이크의 남단에 있는 작은섬에 묻고온 겨울에잡아둔 고기를 가질러 떠났다. 강의어름이 완전히 녹기전 썰매로 여행을 할수있는 날짜가 겨우 몇일밖에 남지않았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있었던 3일째되는 아침에비가내리기 시작했다. 이땅에서 일어나는 모든것이그렇듯이 비는 억수처럼 쏟아졌다. 프란쯔와 나는 오두막 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다. 카리브 가죽으로 덮인 지붕을 때리는투박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려니 요란한 빗소리 속에서도 분간해 낼수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조심히 귀를기울여 보니 그 소리가 강의얼음위로 흘러내리는 눈이녹은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같았다.

(계속)

한국일보 583-2363

ecosys 생활가구·생활예술
MODERN FURNITURE
멋과품위를자랑하는 가구점
○최고의 품질 ○섬세한디자인 ○저렴한가격
특별세일
가죽제품공장과 쇼룸을 구비하여 특별대매출을 단행합니다.

생활의 풍요와 안락한 가정을창조하는 현대인의 가구점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漢江서 砂金을 캔다

本社取材팀 現地서 사흘간 晝夜취재로 확인

南楊州·廣州郡 골재채취장서 年40kg 4억여원 추산

한강상류의 한 하상(河床)에서 3년전부터 상당규모의 사금(砂金)이 비밀리에 채취돼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한국판 「골드·러시」라고할 이 사금은 골재 채취과정에서 모래에 섞여있는 작은금알맹이들을 민간업자들이 골재채취 인부들과짜고 걸러내 모은 것인데 지금까지는 소량이어서 별관심을 끌지못했으나 골재채취장비가 현대화된 79년부터 사금채취량이 급증, 지난해의 경우 40kg(싯가 4억7천만원상당)에 달했으며 본격적인 채취에 들어가면 대폭생산량을 늘릴수있다는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일보취재팀이 지난3일간 밤낮을 가리지않고 현지에서 심층취재한 끝에 확인됐다. 이 사금채취량은 지난해 우리나라 금생산량 1천2백82kg의 3.12%에 해당되는데, 현대장비가 동원되는경우 상당량을 채취할수있을것으로 전망된다는게 관계자들의 진단이기도하다.

난데없는 노다지의 꿈이부푼가운데 사금채취의 바람이 극비리에 일기시작한 곳은 경기南楊州郡九里邑土坪里에서 廣州郡東部邑漢沙里에 이르는한강상류의 골재채취장.

◇특별취재팀▲사회부=方旼俊▲사진부=韓隆▲주간국=張元久기자

◇「노다지」의 現場 노다지 사금을 가려내는 현장인 골재채취장의 선별기。모래가 나오는 홈통에 장방형의 철망과 마대 8개씩을 잇달아 깔아두면 모래속의 砂金가루가 마대에 묻히는데 1대의 선별기에서 만 하루 2돈가량이 나온다。본사 취재팀이 심야에 현장에접근, 홈통에깔린 철망과 마대를 확인하고있다。

漢沙지구 골재채취장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현재 한양주택, 극동산업·영동개발등 굴지의 건설회사와향우골재·남성골재·삼우자조회등 골재채취전문업체를 포함, 모두 18개업체가 대규모로 골재를 채취하고있다. 사금이 채취되는 곳은 바로 이들 골재채취회사들이 가동하고있는 채취선21척과 선별기 10대등 모두30여곳인데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극히 간단한 장비만으로 채취가가능해 채취선이나 선별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엉뚱한 부수입을 올리기에 바쁜실정이다.

사금채취과정은 극히 간단했다. 골재채취선의 경우 강바닥에서 퍼올려진 원석이 ㄴ형의홈을 흘러내릴때 홈바닥에 마대를깔고 그위에 다시 비교적 칸이 좋은 철망을 엎어놓는다. 그러면 원석이 흘러내리면서 금가루나 쇠가루등 무거운성분이 철망을빠져 마대의 올틈틈이에 박히게 된다.

마대에 거의틈이없이 금속성분이 박혔을때 이를걷어내 물이담긴 함지박에넣어 금속성분을 씻어낸다. 이과정에선 금이 있는지 거의 육안으론 알수없지만 이성분을 다시 가는체로쳐서 모은다음여기에 수은을 떨어뜨려 금이나 은성분을 흡수, 이수은덩어리를 헝겊에싸서 짜면 수은은 밖으로빠지고 헝겊안에는 큰눈깔사탕크기의 빛나는 금가루가 뭉쳐지는 것이다.

선별기에서의 사금 채취는 채취선에서 보다좀편리하다. 선별기는 채취한 원석을 쏟아 모없는 흙석, 4부석, 8부석, 모래로 분류하는데 모래가흘러내리는 홈에 같은장치를해두면 비교적 불순물이 적은 가는모래와 사금·철등만 마대에 박히게된다.

현재 이곳에서 가동중인 30여대의 골재채취선과 선별기의 홈엔 모두 마대와 철망이 깔려 금을채취하고있다. 이일대 사금채취업자와 인부들의 증언을종합하면 1대의 채취선이나 선별기가 월평균 생산해내는 사금량은 40g으로 30개소가 지난9개월간 캐낸양은 1만8백돈으로 추정할수있는데 이를kg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40kg선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사금채취는 인부들이 채취선이나 선별기안에서 자신들이 직접하는 경우와 인부들이 사금채취가 가능한 홈을 사금채취업자에게 제공, 대신 월50만원~1백50만원의 수고료를 받는것등 2가지가 있다.

사금채취업자가 채취한경우 수시로 마대를 수거, 일정한장소에서 사금을 추려내 서울시중의 금은방에 넘긴다.

수은에의해 추려진 사금은 순도가 50~60%정도로 여기서는 더이상 정제되지않은채 서울시중의 금은방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1돈당 가격은 대개 시중금가격의 3분의2 수준인 3만원.

현재 이곳에는 3명의사금채취업자가 20여개의 채취선과 선별기를맡아 사금을 채취하고있고 나머지 10여곳도 인부들이 직접 사금을 채취한다.

지난79년부터 사금채취에 손을댄 金모씨(45)는 한대의 채취선에 15장의마대를깔아놓고 1일평균 사금2돈이상을 채취, 크게 재미를본케이스로 이미 거부로 인근에소문이나있다. 金씨가 채취선에 지불하는 수고료는 월1백50만원. 사금선별작업은 金씨의 어머니 張모씨(63)와 아들(20)이주로하는데 아들이 모터보트를타고 마대를수거해오면 張씨는 대·중형크기의 3개의 플래스틱함지박과 가로 세로 각각 30cm크기의 체, 수은, 헝겊만으로순도50~60%의 금을 선별해낸다.

朴모씨(32)는 선별기1대에서 하루평균 2돈의 사금을 채취, 이것을 시중금은방에넘겨 얻은수입을 8명의 인부들끼리 서로 나누어갖는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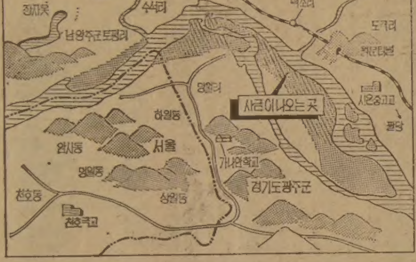
朴씨에의하면 지난해 장마가 지난후인 8월엔 각채취선과선별기에서 상당량의사금이나와 금은방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사금삽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금을 수집해가기까지 했다는것.

한편 금광전문가 金東震씨(60)는 「우리나라의 개천에는 대부분 극히 소량의 금성분이 발견되는게 사실」이라면서 「지난9개월간 40kg이나 채취했다면 굉장한 노다지」라고지적, 큰 관심을 보였다.

金씨는 「사금채취가 확인된이상 채취업자나 골재채취업자들이 정식으로 광업권을 얻어 본격적으로 채취한다면 우리나라금생산량에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3월초부터 12월말까지 골재채취 허가가난 漢沙지구는 경기 南楊州郡九里邑土坪里에서 경기 廣州郡東部邑漢沙里까지 7km에 이르는 한강 하상으로 모두 7백80만입방m의 건축용 모래와 자갈이 채취되게 돼있다.

◇砂金 채취지역◇



◇걸러낸 砂金덩이 漢江 모래에서 걸러낸 사금덩어리。비밀사금 채취업자인 張씨 할머니가 20일 하루동안에 1개골재채취선의 홈통에 깔아둔 12개의 마대에서 거둬들인것으로 큰눈깔사탕크기。張씨는 4돈은될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砂金채취량의 16倍

砂金이란 金鑛아닌 砂鑛에서 캐내는 금으로 작은 알맹이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큰덩어리로 나오기도 한다. 순도는 1천단위로 표시되는데 보통 8백단위이상인것이 특징. 수반광물은 자철광·티타늄철광·석영·석류석·모나자이트·지르콘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金생산량은 1천2백82kg. 이중 강가나 바닷가에서 채취된 砂金은 2.5kg으로 국내 금생산량의 0.2%에 불과하다.

砂金鑛지대는 남한에서는 경기도 安城郡·平澤郡·龍仁郡, 충남 天原郡·洪城郡, 전북 金堤郡·南原郡과 북한의 평북 平原郡일대로 日帝때는 砂金전문채취 광산만도 17개에 달해 연간 1천kg 안팎을 생산한때도 있다.

해방이후 砂金채취량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이 폐광됐고 현재는 경기도, 강원도, 전북등지에있는 4개 사금광산만이 소량의 사금을채취하고있다. 사금 채취량은 78년에 21.8g, 79년 1.307kg, 80년 2.501kg이었고 올들어서는 채금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있다.

지난해 金 수요량은 5천2백53kg으로 국내생산량으로 24.5%를, 나머지75.5%는 수입금으로 충당했다.

한편 지난75년에는 강원春城郡西面德斗院3里 衣岩댐하류 일대에서 한때 사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돌아 그린벨트지역임에도 40~50여명의 채취꾼들이 몰려 사금파기 러시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3~4리어카분의 흙을 걸러내야 금1~2돈정도밖에 채취가 되지않아 큰재미는 보지못했었다.

北韓은「6·5提議」應하라

政府성명 對南비방·武力도발 中止촉구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부장관은 20일 北傀의 再侵凶計를 규탄하고 6·5제의의 수락을 촉구하는성명을발표, 『우리는 北韓당국에게 武力과 폭력에의한 공산赤化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幻想에 불과하다는것과 또다시 6·25와같은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곧 북한공산집단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것』이라고 경고하고『北韓당국이 하루빨리 우리의 1·12및 6·5제의를 수락해 조국의 통일문제를 平和的으로 해결하기위한 南北對話에 호응해 나올 것』을 促求했다.

李장관은 성명에서 『北韓공산집단은 세계곳곳에서 저들의 동조세력을 앞세워 갖은수법으로 反韓공작과 僞裝평화공세를 가열시키고 있고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엉뚱하게도 북한공산주의를 반대하지않는 이른바 「聯共勢力」이어야만 남북통일문제를 함께 논의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한민국정부는 타도의 대상일뿐 대화의 상대가 될수없다고 強辯하고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태도는 특히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안정되고 외교적 지위와 國力이 신장되는데따른 그들의 불안과 초조를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최근 北韓당국은 全斗煥 대통령의 南北韓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제의등 우리의 대화재개노력을 완전히 外面한채 안팎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惡意에찬 모략선동과 비방책동을 한층더 격화시키고있다』고 밝히고 『특히 北韓공산집단은 連日 주민들을 동원, 각종형태의 군중집회를 열어 對南赤化야욕을고취하고있을뿐 아니라 불온전단을 우리나라전역에걸쳐 대량살포하고 모든방송망을 통한 對南비방책동에 혈안이 되고있으며 한편으로는 간첩을침투시켜 우리사회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꾀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새시대를 맞아 우리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된 민족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시키기위해 北韓당국에 대해 인내와 성실로써 남북대화의 재개를 꾸준히 설득해왔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우리의 노력과 제의에대해 北韓측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응수해오고있는 사실은 저들의 한반도 赤化통일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것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받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때일수록 국민모두가 정부와 함께 안보태세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光杓문공

柳炳賢 駐美대사에 全大統領이 信任狀

全斗煥 대통령은 20일상오 청와대에서 柳炳賢신임 駐美대사에게 신임장을 주었다. (사진)

全大統領은 이에앞서 울진·렌마니어고·홀름 신임駐韓 덴마크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이 각각 배석했다.

柳民韓총재 出國 美·中南美등巡訪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美國과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등 中南美5개국을 순방하기위해 20일하오6시 KAL機편으로 출국했다.

베트남、아세안平和案 수락

캄問題 國際會議소집에 동의

【홍콩20日AP합동】 베트남은 20일 캄보디아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회의소집안에 동의하면서 東南亞국가연합(아세안)이 제의한 「3개항의 캄보디아평화안」을 캄보디아문제해결을위한 「올바른방안」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기관지난단에실린 논평을통해 베트남측은 인도차이나와 아세안국가들이 유엔사무총장이 개인자격의 옵저버로참가한 가운데 지역회의를 열자는 아세안측 제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난단지는 이어 그자리에는쌍방이 합의한제3국가 대표들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세안5개국 외상들은▲캄보디아 주둔 모든 외국군의 철수▲유엔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파견▲교전중인 캄보디아내 파벌의무장해제등 3개안의 평화안을 제시한바있다.

아세안、한국產武器 필요

美비즈니스·위크誌

【뉴욕19日=金泰雄특파원】 소련과 베트남의 침략위협을 받고있는 아세안5개국은 한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갖기를 원치는 않으나 한국산무기의 필요성을 절실히느끼고 있다고 비즈니스·위크誌가 6월29일자에서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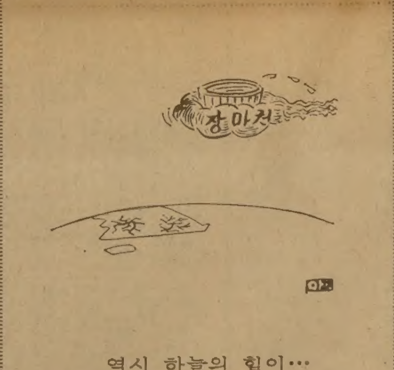
낙하산을 위시해 유도탄이 장비된 경비정에 이르기까지 군사장비를 생산하고있는 한국은 東南亞의 무기보급창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同誌는 보도했다.

권위있는 美 경제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誌는 6월25일에 시작되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순방은東南亞안전에 중요한뜻이 있음을 지적하고 태국같은나라는 한국 대통령의 방문이 늦은감마저 있다고 환영하고 있음을 전했다.

北傀 玄峻極일행 日、滯在연장拒否

【東京20日=聯合】 일본을 방문했던 북괴의원대표단(단장 玄峻極)은 방일중 2일간의 체재연장을 신청했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갓도리·야스에(鹿取泰衛) 일외무차관대리(외무심의관)이 밝혔다.

社會漫評



역시 하늘의 힘이…

地平線

朝鮮중기의 유학자 李重煥(1690~1752)은 그가쓴 「擇里志」(「卜居總論」)에서 「살기좋은 고장」의 조건을 들고 있다. 그 첫째는 地理니 고장의 風水요, 둘째는 生利, 곧 땅의 기름짐과 물화유통의 편함이며 셋째는 人心, 넷째는 유람할만한 山水다. 지금에 맞춰보면 고장의 자연환경과 경제여건, 지역사회의 인간관계라 할것이다.▼현대판 「擇里志」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都市工學·環境工學도 비슷한 테마를 다룬다. 도시의 環境指標를 설정하여 都市環境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미국에서는 각종 지표로써 都市環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것이다. 그 한例가 서울大 楊秉彝교수의 논문 「環境指標를 활용한 都市環境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서울大 環境論叢⑧)다.▼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살기좋은 도시」는 慶州·金泉·束草, 반면 「살기고약한 도시」는 昌原·城南·水原등의 순으로 꼽힌다. 이논문이 설정한 指標는 安全·健康·能率·快適性에 걸친 45개항목으로, 物的·客觀的인 것을 망라하고있다. 따라서 社會經濟나 自然的·主觀的 環境까지 엮어낸 「擇里志」처럼 포괄적인것은 아니지만, 都市環境을 數量化하여 그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작업은 도시의 등급을 매기는데 그치지 않는 뜻이있다.▼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살기좋은 도시」는 인구10~20만규모이며 그렇지못한도시는 신흥·工團도시다. 大都市로의 발돋움이 시민들을위해반드시좋은것만은 아니며, 그간의 新都市건설·도시개발이 실패라는 증거다. 시간적으로는 지난10년사이 오염으로 인한 健康性, 공간부족으로인한 快適性의 악화가 두드러진다. 그까닭은 「한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都市環境은 反比例한다」는 圖式으로 설명이된다. 지금까지 도시팽창에의 대응이 잘못돼 있었다는 얘기가 될것이다.▼아닌게 아니라 도시인구와 환경의 「反比例관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적어도 지금의 도시개발 戰略이 그대로인 한 그렇다. 「살기좋은 都市」가 아니라, 최소한의 「살만한 都市」를 위해서도, 지금은 도시개발의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때다. 「生活의 質」, 「어메니티」(快適性)확보를 위한 理念轉換이 필요한것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擇里志」的 발상이다. 仁川과 大邱등, 새로 발족할 두 直轄市의 初代市長 발령을 보며, 축하와 당부를 함께 보낸다.

구독신청 533 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서세
금: 온스당 US 464
은: 온스당 US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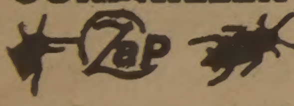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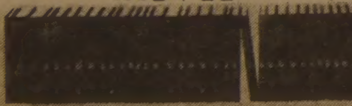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도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예수.
☎: 255-6849, 255-0713

BRITAN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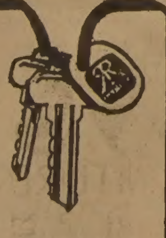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536-9082(B), 245-7522(R)

특별할인은 6월20일 까지입니다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 해 문
Finch & Keele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99이상 •중고품: $10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363-6077

議員外交 본격稼動

—몇사람이 어디로 떠나는가

회기를 마치고 韓·日의원연맹의 한국측幹事·團16명이 22일부터 東京에서 열리는 양국간사회의에 참석키위해 떠남으로써 議員外交는 이제 본격稼動단계에 들어가고있다。11대 국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의원외교를 전개하기위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온 국회는 의원외교운영협의회를 구성 발족시킨뒤 정기국회가 열리기전까지 모두 14개팀을 파견하는동시에 각국의회지도자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을 세우고있어 7월부터는 의원외교가 러시를 이룰것같다。

北傀 玄峻極의 日本入國으로 묘한 外交波高가 높아지는 가운데 본격 出帆하는 국회의 의원외교는 과연 얼마나 所期의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있다。11대들어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마쳤거나 여행중인 의원및 6월중으로 出國할 의원들은 모두 86명。

올해 94명 出國예정

各常委끼리 議員끼리 티킷爭奪戰 치열

韓日議員聯필두…各黨 계획서提出 분주

【李以春기자】

外務委、金次官보고청취

"日도 玄峻極 정치활동是認 再發방지 銳意주시"

臺北APPU 참석 대표단8명 出國

犯罪 9.2%늘어나

81년 靑少年白書발간

人事異動

共産圈문제 연구소 理事長에 方性出씨

교통부企管室長 金昌甲씨

政局往來

日대표"진정한 友好는 어려울때 서로 도와주는것"

【東京=宋孝彬특파원】

社說

容納못할 日本의 表裏

—玄의 政治活動묵과와 責任회피

韓日間에 모처럼 새로운 次元의 友好關係를 정립하려는 싯점에서 日本政府가 눈감고 아웅式 二重外交의 作態를 되풀이함으로써 19日 崔慶祿駐日大使가 政府의 훈령을받고 급거 귀국하는등 兩國間에 긴장이 再燃되고 있다。第5共和國의 出帆後 韓國측은 계속 兩國의 참다운 友好·協力關係를 증진시키기 위한 諸般조치를 취해 왔으며、그 實効性을 높이려고 韓日議員연맹 기구의 再整備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努力의 결과、최근 韓日兩國間에는 議員들의 相互訪問이 盛行하고 앞으로 있을 外相會談과 頂上會談의 整地作業이 한창이다。그러나 日本政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玄峻極을 團長으로 하는 北傀代表團의 日本入國을 許容하고 더우기 그가 入國條件을 무시한채 日本신문들과의 회견등을 통해 우리 國家元首와 體制를 비방하는등 反韓政治活動을 하게끔 하였다。

玄이 日本에서 金日成 세습체제를 찬양하고 南北對話에 관한 우리側 提議에 폭언만을 일삼았던 政治行脚은、부분적으로는 오히려 日本朝野의 빈축을 사는 結果를 빚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問題視하려는 것은 北傀代表團의 政治行脚이 빚어내는 結果의 好·不好에 있는것이 아니라、오늘의 싯점에서 北傀代表團의 入國을 許容한 日本政府의 表裏不同한 二重的 外交術法과 그것이 빚을 重大한 結果에 있다。

日本政府가 韓日兩國政府및 議員間의 交流와 接觸이 活性化되는 싯점에서 北傀代表團을 入國시킨것은 그들이 이른바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北傀側에 나타내주기위한 것이었다고 할수있다。日本정부는 玄峻極의 入國目的을 위반한 反韓政治行動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느니 「滯在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느니 하는것으로 우리정부와 國民감정을 무마하려들고있다。

그러나 北傀집단의 性向과 일부매스컴등 또는 과거의 經驗으로 보아 日本정부가 당초부터 北傀代表團 入國이 빚을 結果에 대해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따라서 우리에 대한 辨明은 「눈가리고 아웅」式의 속임수요 이른바 等距離實利外交를 야금야금 實踐해 가려는 底意의 表出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日本의 이와같은 外交作態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저해함은 물론 日本自身의 安全과 實利를 크게 害치는 結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자 한다。北韓共産集團의 最近動向은 이를 明白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北韓當局은 근래 연일 住民들을 動員、各種群衆集會를 개최시켜 對南赤化야욕의 고취에 광분하고있다。또한 남한 각지에 대한 불온전단 대량살포、방송망을 통한 對南비방、간첩침투、海外에서의 反韓工作과 위장평화공세등 온갖 好戰的 도발행위를 어느때 보다 강화하고있다。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聯共」세력이 아니면 統一문제를 論議하지 않겠다고 主張하면서 현 大韓民國政府는 오직 打倒의 對象일 뿐이라고 強辯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1·12및 6·5提議에대한 北韓共産집단의 應答인 것이다。이는 그들이 평화통일이나 南北對話에는 뜻이 없고 아직도 무력과 폭력에의한 적화통일의 환상에 사로 잡혀있는 것을 입증해주고 남는다。

北韓당국의 이와같은 斷末魔的策動에 비추어 볼때、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에 기여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한다는 日本이 취해야될 態度와 政策은 分明해진다。그것은 결코 南北分斷을 이용한 短期的 實利外交에 눈이 어두워 等距離外交로 北傀를 고무하거나 北傀要人을 불러들여 장단을 함께칠 것이 아니라 北傀가 무모한 武力赤化야욕을 버리지 않는限 「등거리 外交」는 커녕 交流도 할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轉換하는 일일 것이다。

此際에 우리는 거듭 北傀당국이 그 好戰的 도발정책을 버리고 1·12및 6·5제의에 응해올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日本의 對韓半島정책에 猛省있기를 거듭 促求한다。

장마는 다가섰다

—뚫어진 틈새없는가、再點檢하자

한해를 두고 낮이 가장 길고 따라서 밤이 가장 짧은 夏至가 오늘이다。절계가 하지에 접어든다는 것은 한여름에 다다랐다는 신호요 또 곧 장마철에 들게 된다는 예고다。

아니나 다를까、중앙관상대는 다음날인 22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며 남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그사이 근 몇달동안 우리는 뙤약볕에 타는 들과 산을 보며 비를 기다렸고 심한 가뭄을 이기기 위한 안간힘을 쓰다말고 기우제를 지내는 소동을 벌이던 끝의 장마소식이다。

의당 우리는 풍년의 한 전제일수 있는 장마철이 여느해보다 4~5일이나 앞당겨진 예보에 반가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으나 그것은 잠시일뿐 이번에는 수해걱정을 하지 않을수 또한 없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동남아몬순지대에 속하여 고온、다습、다우의 자연적 조건속에서 살아왔고 특히 장마철 사이에 한해 강우량의 3분의1이 쏟아지니 수해 역시 연례행사로 치러온다。

지난 50년간 연평균 수해규모는 사망자 2백50명에 재산피해가 2백46억원이었다가 최근 20년간의 추세는 급격히 증가하여 재산피해에 있어서만도 76년에 1백40억원이던것이 79년에는 1천52억원으로 껑충뛰었다。

이와같은 수해의 대형화는 인구의 급증과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시설의 대규모화、토지이용의 고도화진도등을 그간의 다목적댐 건설이나 하천개수같은 수해예방조치로는 다 장담치 못했던 탓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수해대책 미흡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예산부족이다。하지만 정부도 종래와같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치수시설확충과 댐건설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물의 유출억제와 범람관리、경제피난조직등 돈안드는 방재에도 배려가 있어야겠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나 시골을 가릴것없이 장마에 이기고 또 수해의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기위해서는 각가정、이웃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같이 보살피며、힘을 모아 수방책및 방재활동을 강화토록해 가야할 일이다。

장마가 갖은 수재의 위험만이 아니라 수인성질병을 비롯한 각종 병마가 크게 나돌기쉽고 음습한 무더위속에서 건강도 기운을 차리기가 어려운 철이다。

집안팎을 어느 계절보다도 깨끗이 청소하고 상한 음식을 섭취하지말아야 할것이며 규칙적인 생활로 정서속에 곰팡이가 슬지않도록하는 노력을 아끼지않아야 한다。

대개 장마철의 병마는 비단 사람에게만 한하는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농어진흥청에 의하면 기후지방에서는 벌써 도열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다。

오랜 가뭄속에서 그토록 어렵게 가꾼 농작물을 장마철의 병충해로 실농하는 일이 없도록해야겠다。

이제 장마는 온다。그것이 아무리 사나운 바람과 집중호우를 수반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사전의 주도한 예방책이 있다면 결코 두려워할것은 없다。

夏至는 분명히 장마의 신호이자 더위의 당도를 알리는 계절의 매듭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모든 재해로부터의 예방을 일깨우는 경고다。

부탁의 말씀

금번 저희 한인연합상사(U.K.L. Cash & Carry)에서는 고객수를 합치어 규모를 확장하여 구매원가의 절감, 경영비의 절감등,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자 H.I.T. 도매상을 인수하였읍니다.
현재 상품의 종류를 늘리어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매일 노력하고 있사오나 미숙한 저희들은 여러분의 고견이 꼭 필요하옵니다.
부디 오셔서 좋으신 말씀을 들려주시어 불편없는 여러분의 도매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198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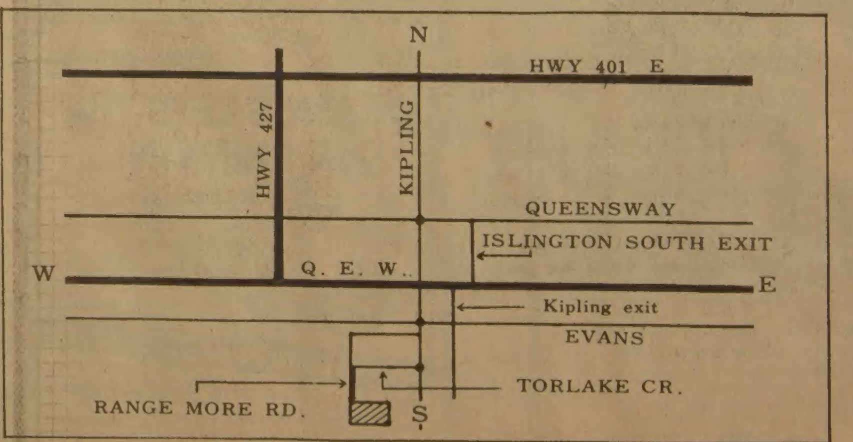
한인연합상사

☎: (251) 6578—9 임·직원 배

금주의 스페샬 (CASH & CARRY에 한함)

- Wilson's Pop $5.29/case
- All Brand의 Chocolate Bar 인상전 가격.
- 기타 다양한 품목에도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한인연합상사



★주문전화: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美서 對中共 무기판매할 경우
"아시아友邦과 事前協議"

【마닐라19日UPI聯合=聯合】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미국의 새외교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아시아국가들간에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외상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만일 미국이 중공에 무기를 판매하게 될 경우 아시아우방들과 사전 협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헤이그 장관은 이날 중공당국이 미국의 對자유중국무기판매가 지속될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축소, 무기판매계획도 포기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아세안 5개국외상및 소노다·스나오(園田直)일본외상과 연쇄접촉을 갖고 미국은 중공과 실제로 무기거래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아시아우방들과 사전협의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한 미정부관리가 전했다。

◇花環받는 헤이그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19일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귀빈들을 위해 베풀어진 만찬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부인 이멜다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필리핀국화인 흰색재스민화환을 받고있다. 【마닐라19日AP聯合=聯合】

헤이그, 아세안外相들에 다짐

헤이그장관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美國의 외교정책, 특히 對중공정책변화에 의구심을 나타내고있는속에 아세안외상들과 회담했는데 목타르·카수마트마드자 인도네시아 외상은 회견을통해 미국이 중공에 무기와 고도기술 장비를 판매할 중대한결정을 내리면서 맹방들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美國의 對中共무기판매전망에 다소 불안을 느끼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헤이그장관과 90분간 회담한 소노다외상은 회견을 통해 일본이 방위비부담을늘리는데는 시간이 걸릴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만일 미국이 일본정부에 대해 방위비를증액하라고 지나친 압력을가한 경우 일본국민사이에 對美방위유대에 대한 저항감을유발시킬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헤이그장관은 마닐라주재 美대사관앞에서있은 필리핀학생데모대의 표적이되었다。

약 1백명의 학생들은 대사관앞에서 『美·마르코스독재체제타도』와 혁명가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미국과 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간의 인권탄압음모설을 비난했다。

그러나 헤이그장관은 이때 대사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正常化·經援가능성否認
헤이그、對베트남관계 言明

【마닐라20日AP聯合=聯合】 헤이그美국무장관은 20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국가와 미국은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무력점령하고 있는한 베트남과의 국교를 결코 정상화하지 않을것이라고 종래입장을 재확인했다。

헤이그는 베트남의 힘을 낭비하고 있는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어떠한 경제원조에도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사드르 亡命處로 美國이 가장安全
國務省관리 밝혀

【워싱턴19日外信=聯合】 미국은 아볼하산·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지않으나 만일 그가 외국에 정치적 망명처를 구할경우 미국이 가장안전한곳이 될것이라고 美국무성의한 관리가 19일 말했다。 이관리는 그러나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처를 원하고있다는 표시는아직없다고밝혔다。

이 관리는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외국에 피신한다면 파리로 피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가자地區에 팔國創設"
레이건提議 이、아랍占領地서의 撤收도

【쿠웨이트19日 AP UPI=聯合】 로널드·레이건미 대통령은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을 토대로 중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계획을 아랍국가들에 제시했다고 쿠웨이트의 알·와탄지가 19일보도했다。

평소 중동문제에관해 정확한 보도를 해온 알·와탄지는 신분을 밝히지않은 뉴욕의 아랍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레이건플랜」으로 불리는 이중동문제해결방안은 ▲이스라엘이 지난67년 중동전쟁이후 점령해온 아랍영토에서 철수하고 ▲관계당사자들간의 협정이 체결된때부터 10년후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에 비무장 팔레스타인국가를 창설하며 ▲이스라엘과 인접 아랍국가들 사이에 미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알·와탄지는 또「레이건플랜」에는 ▲예루살렘을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및 유엔의 공동관할하에두며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승인및 정치적인 외교관계의 기타관계의 수립계획이 담겨져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신문은 이계획이 어느 아랍국가에 제안되었는지는 밝히지않았는데 쿠웨이트와 베이루트의 외교관들은 이보도에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않았다。

55개국에 초청장
캄會議에 발總長

【유엔本部19日外信=聯合】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오는 7월13일 개최될 유엔 주관하의 캄보디아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한 55개국에 공식초청장을 발송중이라고 한 유엔 대변인이 19일밝혔다。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이국제회의는 지난해10월 채택된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캄보디아 주둔외국군의 철수와 유엔감시하의 총선실시 문제를 협의하게된다。

蘇、對美대화再開포기

【모스크바19日AP聯合=聯合】 소련은 미국의 최근 대중공 공격용 무기 판매결정과 관련,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던 희망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보인다。 이같은추세를 뒷받침하는 가장 최근의 조짐은 소련공산당 국제부부장 바딤·자글라딘이 소련평론지 「新時代」최신호에 기고한 기사에서 격렬한 대미비난을 퍼붓는가운데 대미관계와 관련, 크렘린 당국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데서엿볼수있다。

자글라딘은 이기사에서 미국이 데탕트는 이예、염두에 두지않은채 중대한 파국을자초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미국의 최근 재무장및 긴장고조추세는 2차대전당시 나치 독일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制裁案 극적議決
安保理、만장일치로

【유엔本部19日=金泰雄특파원】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공장공격사건을 만1주일간 토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 오전회의에서 미국과 이라크가 극적으로 합의한 타협안을 만장일치로채택했다。 安保理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신랄히비난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핵공장을 감시할수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메아리
名畵의 視野

홍안백발、노갈흑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진지 오랬다。 카메라가 돌지않을때마다 대중의 우상들이 明滅했다。 名匠이 만들어낸 예술과 명배우들의 면모가 「회고의 감명」을 새겨갔다。

엄마전 한 텔리비전 화면은 윌리엄·와일러감독의 영화세계를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었다。 30년대에서 최근까지 와일러감독의 영화에는 조금도 퇴색함이 없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말대로 「영화는 영원한것」임을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의 연속이었다。

요즘 서울 변두리 어느 극장 앞에 「컬러TV 설치」라는 이색선전이 나붙었다。 극장에 컬러TV라니 얼핏 이해가 안간다。 알고보면 극장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안간힘이다。 영화도 보고 텔리비전도 보아달라는 극장측의 하소연이 담긴 「배려」다。

「영화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斜陽의 그림자가 짙음을 숨길수는없다。 그렇다고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현상이 보인다。 국산영화의 관객동원집계로는 올상반기에 절망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서울 개봉관 기준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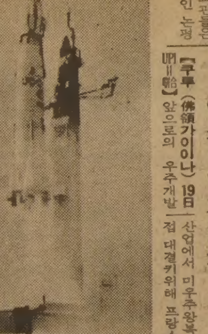
볼만한 영화는 꾸준히 관객들이 찾고있다。 外畵의 경우 상영작품 거의가 20~30만명 이상의 발길을 극장으로 모았다。 국산영화도 20만명이상을 동원한 작품이 있으며 이에 반해 비참하게 흥행의 고배를 마신것이 많다。

이기록은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임이 알려졌다。 역시 名畵의 매력엔 사양이 드리울수 없는것이 아닌가…。

영화왕국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뚫으려 힘든 모색을 하고있다 한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영화계에선 외국의 화제작을 수입하려 분주하다。 (한국일보 20일자 12면)

여기 당부해두고 싶은것은 외화를선별,수입할때 너무 수지타산에 치우치지말고 시야를 넓혀 달라는것이다。 미국·홍콩쪽에만 쏠린 눈을 유럽으로 까지 돌려 훌륭한 작품을 찾아내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 영화인들도 자신감을 높여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해줄것을 기대한다。 극장은 시민에게 「평화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과 오락과 감동, 이것이 우리 생활에 윤활유역할을 하는 극장의 참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宇宙로 치솟는 아리안號 서구10개국이 공동개발한 인공위성발사로키트 아리안號가 19일하오 9시32분(한국시간) 南美대서양연안의 佛領기아나의 쿠루발사대를 떠나는 위용。【쿠루(佛領기아나)19日AP聯合=聯合】

유럽 10國공동개발 衛星
아리안發射 성공

【쿠루(佛領기아나) 19日 UPI=聯合】 앞으로의 우주개발 산업에서 미우주왕복선과 대결키위해 프랑스를 주축으로한 10개 유럽국가들이 공동개발한 인공위성발사로키트 아리안이 19일 하오9시30분(한국시간) 남미동북해안의 쿠루소재 프랑스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사상처음으로 2개의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동시에 진입시킴으로써 유럽의 우주산업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대부분의 소요경비를 부담한 높이 46m의 3단계 아리안로키트인 LO3호는 발사16분21초후 적도상공 약3만5천8백87km의 궤도에다 유럽기상위성 1개와 인도애플통신위성 1개를 동시에 진입시킴으로써 사반세기에걸쳐 초강대국들의 독무대였던 우주산업개발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시작했다。

코스모스와 살류트 도킹에 成功

【모스크바19日UPI聯合=聯合】 소련의 무인우주 탐사선 코스모스 1267號가 19일하오3시52분(한국시간) 지상으로부터 3백54km 떨어진 지구궤도에서 소련우주정거장 살류트 6號와의 도킹에 성공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對蘇 封鎖정책

中東치중 막으려는 속셈
30년전의 「트루먼政策」답습이라는 意見도

【워싱턴20日=曺淳煥특파원】 요즈음 워싱턴서 국무·국방성 대변인의 브리핑을듣고 신문 TV를 보고있으면 세상은 매우 빨리 변하며 어지러워져 간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3년전 긴급출동부대형성이 의회에서 거론될때만 하더라도 이부대가 급파될 분쟁가능지역으로 중동·한반도·나토가 꼽혔다。 최근에도 심심찮게 극동부대강화가 논의되지만 중동만이 강조되고 한반도는 싹빠져버린다。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사라졌다고 미국사람들이 보지야 않겠지만 한미간의 유대강화로 그위험성이 줄어든것으로 보는것 같다。 그보다는 중동위기가 미국발등에 떨어진불이 되고 있다。

미국이 중공에의 무기판매를 결정한데도 소련의 배후를 찔러 중동에다 전력을 쏟지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것같다。

중국 新疆省에미·중공협력으로 전자정보청취소를 두어 소련미사일 실험을탐지하는 정도로미·중공관계가 접근했으니美·中共이합세한힘으로 소련팽창주의를 막게되고 세상은 조용해 질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분석은 그반대로나온다。 미국의對中共무기판매로 소련의 폴란드군사개입가능성은 더 짙어지는것으로 뉴욕타임즈는 풀이했다。 소련이 폴란드에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미국과 서구가 중공과 똘똘뭉치게되고 미국이 중공에 무기를 팔게될것이라는게 소련의 폴란드침공을견제해온 요인이 되어왔다는것이다。 그전제카드가 없어진셈이다。

소련이 폴란드주변에서 군사작전연습을 하고있을때 서구를 방문한 와인버거 미국무장관은 중공에의 무기판매가능성을 시사하여 소련을위협한적이있다。 소련은 新疆省에 미전자정보청취소가 설치된것을 두고 제국주의자들의 정보활동에 중공이 불명예스런「자발적소작인」이되었다고 비난한다。

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지난 17일행한「레이건행정부의방위정책」이란 중요연설에서도 미국은중부유럽、페르시아灣、동아시아、중미에서 동시에 하나이상의 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짙어졌으며 미국은 소련이나 그대리세력이 공격해오는 지역에서 맞설뿐아니라 소련군의 약한지역을 골라 반격할것이라고말했다。 소련군의 약한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궁금해진다。 중부유럽、페르시아灣、아프리카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소련권의 강한곳이 된다。 중미의 쿠바는 소련권의 약한곳이 될지모르며 미·중공의 군사력이 합치면 동아시아도 소련권의 약한곳에 포함될지 모른다。 북한을 소련권으로 보는데도 문제가 있겠으나 북한에 대한군사행동에미·중공이협력할것이라고는 아직 생각할수 없다。

미·중공의군사동맹단계로접어들면서 중소간 거리가더멀어지고 험악해지는 것은사실이다。 중소간의 거리가멀어져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그중간에서 줄타기하는 북한의 처지가 난처해지는 것도 부인할수 없다。

헤이그 장관을 수행취재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紙 기자는미국의對中共무기판매에는 북한의 후견국인중공에 대한 미국의영향력증대를 뜻하므로 한국은 환영할것이라고 풀이했다。 과연 그럴까。 미중결속이 크게보아 한반도전쟁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것이니 그점에서 한국은 환영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공의 제1우방이 되고있는터에 한국이 사들이는 F16전투기의 엔진을 중공도 사들이는것을 한국이 환영할수 있을까。

미국의 원로기자들은 한TV좌담회에서 미국이 중공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등에 무기나 군사원조를 주는것과 관련해서 레이건행정부는 30년전 트루먼행정부의 對蘇봉쇄정책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고 의견을모았다。

國際焦點

美議會報告書 강조
對이强硬조치 안취하면 原電공격助長결과 초래

【워싱턴20日UPI聯合=聯合】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폭격에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다른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非우호국들의 원자력시설을 공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美의회에 제출된 한보고서가 20일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이라크침공』이라는 제목의 33페이지짜리 美의회연구국(CRS)보고서는 일부국가들이 미국의 이같은 침묵을 무력으로 비우호국들의 핵시설을 파괴해도 좋다는것으로 해석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오늘의 小史 <21일>

▲美軍, 오끼나와 점령 (1945)
▲韓國,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 (1947)
▲農地개혁법 공포 (1949)
▲鎭海서 아시아 민족반공대회 개막 (1954)
▲革救·革檢조직법 공포 (1961)
▲佛, 대서양함대 NATO서 철수통고 (1963)
▲北傀, 북송선 만경봉號 재일교포 1백67명 북송 (1974)

日本의 反對

「巨人中共」이 重武裝한다

美의 무기販賣결정의 波長
對蘇인식에 현격한 차이
내가 먹기는 싫고、남이먹는건 배아픈格

【東京20日=宋孝彬특파원】 20일 마닐라에서 열린 헤이그 美국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 일본외상과의 첫회담은 對蘇 인식상의 현격한 차이를 확인한채 평행선을 그었다。

헤이그-소노다회담은 두가지 문제로 집약됐다。

첫째 하와이에서 열린 안보실무자 회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방위력증강요구는 일본이 받아들일수없는 것이라고 거절한 점이다。

둘째 헤이그 국무장관이중공을 방문하여 공격용 무기를 판매키로한데 대해 일본은 아시아의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역시 반대한 점이다。

지난5월 美日 공동성명에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국제적 역할분담을 약속했던것과는달리 소노다외상은 일본의 방위력증강과 美·中共간의 군사협력에 거부반응을보인것이다。

하와이에서 열린 안보실무자회의에서 미국측은 對潛초계정1백25대、조기경보 통제기16대、對潛用 수상함정90척 등 대폭적인 항공및 해상방위력증강을 요청했는데 이는 일본이 당초계획했던 방위증강 계획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헤이그국무장관은 소노다외상을 만나자 마자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을 설명하면서 美국무성과 국방성은 의견상 다른 점이 없다고 말해 일공동성명에서 명시한 동맹관계를 내세워 방위력증강을 서두르면 일본국민을 자극하여 오히려 실현하기어려우며 평화헌법과 재정형편상 대폭적인 방위력증강은 불가능하다고 표명했다。

소노다외상은 이문제는 이달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와인버거-오무라(大村)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말했다。

이와 함께 미일간의 현안문제로 등장한것이 중공에대한 미국의 군사협력문제다。

소노다외상은 헤이그국무장관에게 공격용무기의 對중공판매는 필요이상으로 소련을 자극하여 긴장을조성함으로써 극동정세의 불안정을유발할것을 우려했다。

헤이그국무장관은 대중공 무기수출문제가 구체적으로 결정된것은아니며 8월 중공군관계자의 방미교섭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문제에관해 일본과도 사전에 협의할것을 약속했다。

일본은 미국의對중공 무기수출문제에대해 3가지 점에서 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다。

첫째 중공에대한 무기수출은 소련·중공·일본의 군사균형을 깨뜨려 불안요인을 싹트게 할 소지가 있다는것이다。 미국이 대소전략상 중공을 서방진영으로 끌어들여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소련의 남진을 억제하는 것은 좋으나 중공군이 현대화를 완수한후 中蘇화해가 이루어질경우 서방진영은 결정적인 열세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미국은 중공에의 무기수출로 경제적 실익을 얻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중공은 무기수입보다 방위산업기술을 도입하여 자체생산을 기도할 것이라는 평가다。

셋째 미국은 중공과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병행하고 있으나 그 균형이 깨질경우 중공의 대미외교방향이 급선회할 염려가 있기때문에 무기수출에의한 외교는 삼가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그뿐만이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인 중공에의 무기수출이 얼마나 안전과 비밀을 유지할수 있을까。 미제무기가 중공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지않은가 하는게 일본의 의구심이다。

일본은 『내가 먹기는 싫고 남이먹는 것은 배아프다』는 격으로 돈이 드는 방위력증강은 싫다고 하면서 미국의 군사협력에 의한 중공의 군사력증강에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대소전략무기마련을위해 아세안과접촉중인헤이그美국무장관이마닐라에서19일 소노다 일본외상을만나 회담했다。【마닐라19日UPI聯合=聯合】

海外토픽

21년前훔친돈 償還
★본전에 利子까지계산

東京교외에있는 한 전당포에서 21년전 1백5달러를훔쳤던 강도가 최근 이자까지 계산해 주인에게 돈을 되돌려주었다고。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당포주인의 부인 미찌꼬여인은 18일아침 문밖에서 2백73달러상당의 엔화가 편지와함께 든 봉투를 발견했는데 편지에는 『21년전의 강도사건을 용서해주시오。 나는 회개했읍니다』라고 적혀있더라는것。

이 전당포는 지난60년6월 6일밤 칼을 든 강도를 만나 1백5달러를 강탈당했었는데 2백73달러상당의 엔화를 되돌려준것은 이자를 계산한 모양이며 강도는 그동안 줄곧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왔을 것이라고 주인은 한마디。【東京=UPI】

母乳授乳지지 決議
★美상원 89對2 壓倒的으로

미상원은 18일 모유授乳지지결의안을 89대2의 압도적 다수로 채택、레이건 행정부와 미식품가공업계에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채택한 분유판매규제강령의 기본목적을 지지하도록 촉구했다。

미정부는 유아용분유가 대다수 빈국에서 오염된 물과 혼합되기때문에 감염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분유판매를 규제토록한 WHO 결의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었다。

그러나 이날 상원결의안은 『母乳의 授乳가 유아의 건강과 성장에서 실상우위』를 확인했다。【워싱턴=UPI】

Century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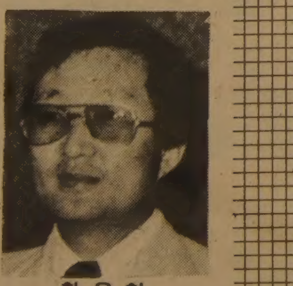
금주의 새리스팅

1. 건물+가게
— 주매상 $4100 가격 $129,500
— 주매상 $3700 가격 $125,000
— 주매상 $4000 가격 $139,000
— 주매상 $4000 가격 $189,000

2. 집
— 방갈로 독채 3 베드룸 룸게지 양호 134,900
— 아파트 10채 달린집 229,000

3. 가 게
— 주매상 $3700 시간 오전9시~오후8시 주일 닫고 그로서리 없음.
소핑센터에 있는 기프트 샵등 다수 있음

4. 동양계 식당 일요일 닫으며, 이윤이 좋고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적은 Down payment $15,000~20,000



황용현

경영상담 · 투자상담 · 모기지알선

로차부동산 318 BATHURST ST
(B)361—0880 (R)266—1548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 533—4125

新風土記

牟陽城 <全北 高敞>

吳贊植 <作家>

운치의 自然石축성… 허물어진채 放置

高敞은 山川의 풍치가 아름답다。한없이 기름지고 넓은 들이 河川流域에 자리해 가히 하늘이 마련한 고장다운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또한 해안에는 干潟地가 넓게 발달하여、茁浦灣에는 未興島、竹島등이 있으며、양식업으로 貝類생산이 많은 고장이다。

우선「高敞!」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牟陽城(일명 高敞城)과 禪雲寺를 연상하게 된다。호남지방의 유일한 자연석으로 축조된 牟陽城은 이고장의 아름다운 山川景槪와 떡판에 찍어낸듯 사방에 널려있는 고적들의 운치로 그명성이 증명하다시피 자못 정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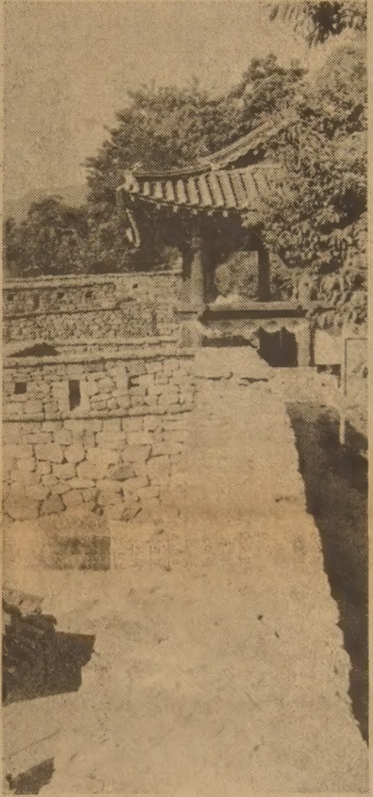
윤달에 돌을 머리에 이고 성벽위를 한바퀴 돌면 위장병이며 신경통등 자질구레한 雜病이 없어질뿐 아니라 長壽한다는 전설이 서려 많은 여성들에게 風俗처럼 되어있다。牟陽城은 高敞읍내에 자리잡고있다。共同버스터미널에서 10여분만 걸으면 綠陰속의 매미 소리에 섞여 또아리 트는 뱀같이 그 거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읍민들의 산책코스로 제격일 자리에 위치한 牟陽城의 둘레는 1천6백80m이며 높이가 4m다。

읍내에서 가장 가까운 拱北樓(北門)로 들어서 城壁을 타고 올라보았지만、3~4m도 城위를 걷지 못하고 내려서야만 했다。군데군데 허물어진채 그대로 방치해둔 곳이 몇백년 묵은 坑道처럼 위험스러워서다。그렇다면 踏城놀이는 언제했단말인가。의심이 들 정도다。매년 윤달이 들 무렵해서만 보수가 가능한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5백38개소의 城堞과 3개의 甕城을 둘러본다。城堞과 6개소의 枚配地는 흔적뿐이고、城壁에 刻字해 놓은 곳이 눈길을 끈다。「淸州始」「和順如」「羅州如」등 지명의 岩刻이 선명하다。

이것으로 미루어 전국 각지방의 장정을 동원하여 築城한 게 틀림없다는 朴炳璟씨(67·고창문화원)는『이 城의 築造연대는 임진왜란 당시 국토수호를 위하여 숙종대왕 때 호남주민은 물론、제주도민까지 동원되어 8년만에 준공되었다고 전하여 지고 있으나 史的근거가 희박하며、이城이 牟陽城이라 불려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는 高敞이 牟陽縣이었던 당시、즉 百濟시대에 축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만 얼버무린다。

당초 이 城內에는 東軒·作廳·武器庫·客舍등 22개의 건물이 있어 전략적 요충시설이 갖추어있었다 한다。하지만 지금은 作廳과 吉賓廳 등만이남아있어 애석한 마음 금할길 없다。더구나 성안에 중·고등학교까지자리하고 있어 성보존에 애로가 많은듯 보인다。하필이면 고적지인 성안에 학교를 세웠을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高敞을 대표하는 고적의 하나인 牟陽城。윤달에 머리에 돌을 이고 성벽위를 돌면 위장병등 잡병이 없어진다는 전설이 서려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바아니나행여나 학생들의 손에 조상의 얼이서린 성이 다치지않을까하는 기분이 들어 씁쓰레할 뿐이다。선조를 추앙하고 家風을 계승시켜 자손의 번영을 꾀한다는 것은 역사를 소중히 한다는 뜻일게다。이것이 해이해질 때、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싹터질수 없으며 바른 민족혼이 水準을 열어 번영된 국가장래를 내다 볼수없다。

그것은 선진국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발전하는 겨레나 국가는 모두 훌륭한 家門의 얼과 선조들의 유적·유물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한때 5대양과도 바꿀수 없다는 세익스피어。그의 生家는 몇백년이 흐른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며、어느나라에나 있는 독립기념관이며 전쟁용사기념탑은 단지 관광용이 아니란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은 심정이다。

벌건 흙을 드러낸 채 여기저기 허물어진 성벽이며 城內에 들어선 학교를 대하니 슬며시 치밀어오르는 섭섭한 감정을 달랠길 없다。그래도 高敞하면 牟陽城을 비롯해 禪雲寺·道遙寺·文殊寺·方丈山·龍湫폭포·茂長南門·孝感泉·起出岩·磨崖丈六佛·金盤玉壺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관광지와 그에 따르는 古跡이 많기로 소문난 고장이다。거기에다 풍치가좋아 큰인물이 잘난다는 高敞이다。특히 서민문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세익스피어라할만한 申五衛將(1812)이며 女流劇唱家 彩仙이 있고、그뒤를 이어 판소리 西便制 金素姬와 東便制 金如蘭등이 이고장 출신이다。

교육가·정치가·언론인이었던 仁村 金性洙선생(1891~1955)도 이고장을 대표할만한 인물이다。샤머니즘을 主潮로 불교·老莊철학·유교 등을 체질화시켜 詩作에 몰두해온「한국 최대의 시인」未堂 徐廷柱선생 역시 이고장이 배출해낸 至寶적인 인물이다。

그러는데도 지방민들의 관리소홀인지 허물어진 성벽너머로 정감없는 학교건물이 버텼으며 연대를 알수 없는 작은 사찰과 역대현감의 善政碑·功績碑(李 대통령 특명으로 고적보존 일환책으로 城內에 모아다 세운) 10여柱가 老松이 우거진 동산에세워진 충혼탑(60년건립)과 함께 이고장의 얼 牟陽城을 지키고 있을뿐이다。

實質的인 民間株主 운영으로 創意性과 效率性 최대한발휘

『이번 韓一은행의 민영화는 앞으로 일반적인 경제운용체제를 民間主導型으로 끌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표현한것일뿐아니라, 정부소유주식의 단순한 매각에 그치지않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은행을 경영토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서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토록하겠다는 것입니다』

李承潤 재무

◇李承潤재무

李承潤재무부장관은 은행민영화는 개인의 창의성으로 능률을 제고하고 복잡한 경제사회에서 주주들의 衆智를 모아 운영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자원배분과 금융효율성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니 실질적이고도 시범적인 민영화가이룩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그간 정부는 은행의 내부경영을 자율화하는등 민영화여건을 조성해왔고 韓一銀민영화과정에서도 알찬民營化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앞으로 민영화은행은 소수그룹의 대주주와 실무적인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운영되겠지만 민간기업으로서의 기업성과 금융업무의공공성을 조화시킬수있도록 대주주의 의결권남용및 금융독점방지,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관여 배제, 만일 은행이파산됐을때의 예금자보호 문제등에 대비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이 민영화되었다해도 정책금융이나 국내여신등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대한 규제를 받지않을수 없다고강조했다。

李장관은 은행이 민영화되면 민영화안된 은행보다 잘해보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등 발전요소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에 치중한나머지 대출요건이 더욱 강화된다든지하는 역기능도 있을수 있다면서 은행민영화를한편으로만 봐서는 안될것이라고 역설했다。과거 은행이官主導로 일관했던것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을위해 필요했던것이며 현재도 정부가정책금융을 점차줄여간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있지만 重化學이나 수출설비지원, 에너지산업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부분이 많은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朝興 第一 서울信託등 나머지 市銀에 대한 민영화문제도 이같은 차원에서 민영화은행의 발전과정을 눈여겨보면서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적 經營刷新案 이미마련
政府·株主·銀行관계定立 과제

安永模 한일은행장은 완벽에 가깝도록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민영은행으로서의 장단기경영계획은 企劃部를 중심으로 한 작업반이 수차례 거듭된 검토를 거쳐 案을 확정시켜 놓았고 經營硏究室에서는 민영화에 따르는 폐단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은행경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종합적인 경영쇄신 방안도 마련되고 있었다。이 모든 작업들을 총괄하면서 민영은행으로의 탈바

安永模 은행장

◇安永模은행장

꿈을 지휘하고 있는 安행장은 韓一銀行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주요 과제로 네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과제는 公益性과 企業性을 여하히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株主와 은행과의 관계, 정부와 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세째는 경영능률을 제고시켜 나가는 문제, 네째는 株主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들간에 조화와 구심점을 형성시켜 나가는 문제등이 주요한 당면과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安행장이 설명해 주는 복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쉽게 공감이 가는 것이었다。주주간의 안정적인 구심점 형성은 현재 상태로 어느 정도 터가 잡혔다는 설명이었다。

大林、日盛新藥、華城제지등 3개기업이 도합21%정도의 持分을확보하고있고 韓一合纖、高麗化學、韓國火藥、韓進등 4~5개 기업이 도합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이들 7~8개 기업이 30%이상의 주식으로 求心을 형성할수있다는 것이다。이들 7~8개 기업이 주주협의회를 구성、經營陣과 긴밀한 유대를갖고 은행을 이끌어나가고 소주주들에게는 非常勤 理事제도를 도입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주면 株主와 은행간의 문제는 쉽게 풀려나갈수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大株主의 경영간섭등 있을수있는 횡포나 독점적 지배권행사는 주주들의 양식을 기대할수도있고 협의회운영등 대비책도 강구돼있기때문에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는것。

은행과 정부의관계 정당문제도 국가시책이나 경제정책의 테두리내에서 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울타리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한다는 일관된 경영원칙으로 원만하게 조정돼 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전해다。

大株主라고 左之右之는 못해
官僚性·높은門턱은 是正해야

『韓一은행은 사실은 지난 60년대초부터 우리사회의 단일거래은행 입니다. 따라서 韓一은행과 大林産業은 그만큼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셈이지요』

민영화되는 韓一은행의 민간최대주주로 등장한 大林産業 李埈鎔사장은 이번 공매이전에도 韓一은행 주식을 갖

李埈鎔 대주주

◇李埈鎔대주주

게된것은 민영화를 내다보고 산것이 아니라 이같은 거래연고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수년간 市銀은 자본금이 수배로 늘어났는데 증자때마다 은행주식시세가 액면가격을 밑돌았기때문에 많은 失權株가 났고 이들 실권주를 은행측의 부탁으로 떠맡다보니 주주가 되었다는것이다。

大林은 이런연고로 韓一銀주식을 1백44만3천주나 갖고 있었는데 민영화방안 발표후 증권시장서 80만주를 사들였고 이번2차공매서도 3백65만4천주를 사들여 민간주주로서는 가장많은 8%의지분을 확보하고 있는것이다。

李사장은 이번 韓一銀민영화에 적극 참여한것은「기존 민간 대주주로서 거래은행이 팔린다니 경쟁심리가 일어났을 뿐아니라 26개 재벌그룹이 공매대상서 제외되고보니 더욱 뒷전에만 서 있을수 없었다』고 겸손해 했다。그러나 사실은 現代建設·東亞建設에 이어 건설업 랭킹3위인데다 건설업체중엔 가장재무구조가 알찬 회사로 알려진 大林이 그간에는 은행·단자·보험회사엔 전혀 손을안대고 서울證券만 갖고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 韓一銀민영화를 계기로 금융산업에도 적극 진출하겠다는 자세로풀이되고 있다。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李사장은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中東系은행과의 合作 은행에대해서도「국내출자 파트너로 마땅한사람이없고 여건이 이뤄진다면」참여하겠다는 태도를보이고있다。

이제 大林은 자신들이지은 새건물에 새로운 주인으로들어가게된다。韓一銀본점건물은 지난77년 大林이 철거공사를 단돈 1원에 낙찰한뒤 이를 연고로 신축본공사를맡아 현재 완공단계에있다。

李사장은 은행이 민영화됐다해서 하루아침에 큰변화가 오는것도 아니며 또 사회적 기능때문에 대주주가 은행을 좌지우지할수도 없는것 이라고 말했다。다만 우리나라금융산업이 다른분야에비해 국제화추세에 뒤져있을뿐 아니라 그간 정부의 직접 콘트럴때문에 너무 관료적으로흘러 은행문턱이 높아진것등은 시정되어야하며 대주주들의 경영관여도 합리적인 사고에서 공감대를 이룰수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할것이라고 李사장은 강조했다。

民營化되는 韓一銀行은 民間金融시대의 試金石

> 韓一은행의 민영화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본격적인 民間主導시대로 들어간다。지금까지 官治金融체제에서 안일하게 기대만하던 은행과 기업들이 새로이 경쟁체제를 맞게되는것이다。더욱 BOA같은 세계 일류은행이 합작으로 국내에 진출하게되므로 경쟁은 치열하게됐다。전환기를 맞은 국내 금융산업과 기업들의 좌표를 점검해본다。【편집자註】

韓一銀行은 주목을 받고있다。다른 은행들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며 재벌들은 탐욕스런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다。일반국민들도 기대와 의혹이 섞인 탐색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실질적으로는 최초로 민영화 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탈바꿈 돼 나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銀行支配를 꿈꾸는 재벌들의수중에 떨어져 그룹의私金庫노릇이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商業銀行 처럼 말만의 유명무실한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생기고 있다。

한일은행이 민영은행으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하게되면 뒤를이어 계속 민영화의 길을걷게될 다른 은행들도 전례를따라 쉽게 성공적인 變身을 하게될 것이고 민영화를 주축으로해서 추진되고있는 金融自律化시책도 효율적으로 완수될수 있을것이라고 금융계에서는 보고있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방해 할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있다。은행의 私的支配를 꿈꾸는 재벌기업들의 탐욕과 大株主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간의 갈등, 은행내부에 도사리고있는 경영의 비능률성, 은행지배에 익숙해 있는 관료들의 오랜 습관, 자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적 장치등등은 모두 민영화를 방해할수있는 요소들이다。이런 요소들이 과감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韓一銀行 역시 9년전에 이미 민영화된·商業銀行처럼 구태의연하게 官治銀行으로 남아 있을수밖에 없게 된다。

뉴스診斷

「官治」非能率벗고 私金融化 경계를
치열한 競爭體制로 轉換期

정부는 商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번 기회에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보였고 9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각종 장애적 法令들을 개정할 방침으로있다。

당사자인 한일은행도 다수 주주들에 의한 안정적인 求心點 형성과 銀行·株主간의 바람직한관계정립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한일은행에 의하면 大林이 法人·個人을 합해 계열 전체로 7백20만주 (9·6%), 日盛新藥이 동률어 4백70만주 (6·3%), 華城제지가 모두 합해 4백20만주 (5·6%)를 각각 확보해 이들 세기업만으로 21·5%의 안정된 구심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韓一合纖 2·7%, 現代 2·7%, 韓國火藥 2·0%, 韓國야쿠르트 2·5%등 중견 주주들이 가담해 7~8개 기업으로 30%이상의 지배적 株主團을 구성할 수 있게돼 있다。

이들 주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은행이 이협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맺어 원만한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면 株主문제는 어렵지않게 해결될것으로 보인다。대주주의 횡포나 주주들간의 갈등,인사개입과 경영간섭, 부당한 압력등 문제는 대화와 조정을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韓一銀은 보고있다。

일반은행들이 주로 우려하고있는 점이 대주주의 은행지배로 인한 금융의 公益性상실과 財閥의 私金庫化인데 반해 금융계에서는 정부와 은행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 하는데 관심을 주로 갖고있다。民營銀行과 政府銀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민영화된 韓一銀에 어느정도 개입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모아 주시하고있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예상밖의 큰폭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시책과 통화신용정책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돼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는 남은 문제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것 밖에 없다。경영 전반에 걸친 과감한·쇄신이 이루어져 舊態를 벗고 새로운 가풍이 일어나도록 개혁이 단행돼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정부와 은행, 그리고 민간주주들의 뜻이 잘 손발이 잘 맞아야 순조롭게 민영화의 결실이 맺어질수 있을것 같다。

【崔相泰·朴武기자】

十字春秋

故意의 失點

趙一文 <建國大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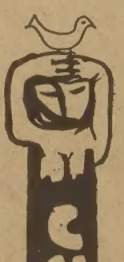
금년 봄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벌어진 그랑프리 마스터즈 세계테니스대회。거기에서 맞붙은 선수는 세계최강의 비온·보그와 존·매켄로였다。여기에 걸린 상금은 모두 40만달러,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만도 10만달러였다。3세트 60점을 따야 이긴다고 가정하면 한점의 단가는 1천6백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백만원이 넘는다。그 귀중한 한점을 매켄로는 일부러 실점했다。

이에 앞서 보그는 한복판을 찌르는 강서브를 넣었다。에이스였다。매켄로는 고개를 끄떡거리고 자리를 옮겨서 다음 서브를 받을 채비를 했다。그러나 심판은 「폴트」를 선언했다。보그가 항의했으나 막무가내였다。하는 수없이 보그는 두번째 서브를 넣었다。매켄로로서는 강도가 떨어진 두번째 서브는충분히 받아 넘길 만했다。그러나 그는 그 공을받아서 멀리 장외에 날려 버림으로써 고의적인 실점을 했다。먼저 들어온 서브는 분명히 「인」이며 따라서 자기가 먹은 것이었다는 것을 암암리에 표시한 것이다。2만 관중은 일제히 일어나 그의 양심에 그칠줄 모르는 박수를보냈다。

이 경기에서의 또하나의 인상적인 장면。게임은 제2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다。3대2로 보그가 앞서고 있었는데 매켄로는 강속구를 치고 네트에 접근했다。보그는 반로빙으로 받아넘겨 공을 보그 뒤로 보냈다。공은 뒷금 안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다。냉철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보그였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그는 주심 앞에 다가가서 끈질기게 항의했다。물론 삿대질하거나 핏대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심판은 경기를 더 이상 지연시키면 실점이 된다는경고를 주었다。1분뒤 심판은 보그의 실점을 선언、스코어를 3대4로 역전시켰다。보그가 계속 버티자 심판은 다시 한점의 실점을 더 가산하여 3대5로 만들어 버렸다。보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장내에 돌아갔다。

페어·플레이를 위하여 거금을 날려보낸 매켄로、침착하고도 단호한 결단으로 세계제일의 스타를 굴복시킨 심판! 선수도 심판도 이쯤은 돼야 멋과 긍지를 가질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일보 詩壇



새 세상 열리네
—「신체 장애자의 해」에

尹石重

사람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건너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눈 밝으면 마음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 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 속 평화 동산。

남다른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덜어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개업

꽃 집

Jane Park Garden

* 생화, 조화, Plants, Gifts, 꽃바구니, 화병등 꽃에 관한 모든물품 대량구비.
* 모든 축하 꽃꽂이나,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 각처 주문 배달.

Eglinton W. / Jane St. / Alliance / St. Clair W.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onto, Ont.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보성 교우회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총회및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영원한 우정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7월4일 토요일 11시
장 소 : SERENA GUNDY PARK
(써니부룩 공원 내)

※전가족 동반 점심각자 지참

보성 교우회
회장 심 용 웅

부산대학교 동창 야유회

초여름 우거진 숲속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웁시다. 음료수및 불고기등은 회장단이 준비하고 가족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되어 있읍니다.

일 시 : 7월4일(토요일) 오전10시
장 소 : ROWNTREE MILLS PARK
(Islington × Finch Ave.에서 Islington북쪽)

연락처 : 755—9902

부산대학교
동창회장단

토론토시

도미니온데이(수) 1981년7월1일 신문지와 부피있는 물건 수거

7월1일(수) 도미니온 공휴일에는 신문지및 부피있는 물품들(냉장고, 소파, 매트리스, 나무, 잡목등)은 수거치 않는다.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품은 7월8일(수) 수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9군데의 병과 쇠붙이 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다.

문의처 : 367—7742

R. M. BREMNER,
P. Eng., F.I.C.E.
건 설 국 장

외국觀光客이 몰려온다

3월부터 증가 5월에만 11萬…日本人이 최고

外貨수입도 1억8천2백만弗 (5월末)

외국관광객이 사상최고기록을 세웠다。 20일 국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3월하순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기시작한 관광객은 4월에 10만5천8백84명、5월에 10만9천6백61명을기록、지난해같은기간의실적보다 평균10·5%가 늘어났고 한국관광의 전성기였던 79년의 같은기간보다 각각 2·3%、1·6%씩을 초과하고있어 최고기록을 나타냈다는것。 또 관광객 증가추세와함께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외화(外貨)도 5월말현재 1억8천2백34만8천달러에달해 작년같은 기간의 실적(1억3천2백25만2천달러)보다 38%가 증가했다。 외국관광객을 주요시장별로보면 일본이 4만9천3백76명으로 가장많고 그다음이 臺灣으로 1만7천7백27명을 차지하고있다。

水害복구비 가로채 淸原、里長1명구속

【忠州=聯】 忠州지검은 20일 수해복구비를 유용한 충북淸原郡文義面九龍1里이장 吳英鎬씨(52)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吳씨는 지난2월9일 수해복구비 1천6백31만원을 郡에서받아 복구사업을 벌이면서 중장비사용료로 1백8만원을 더 사용한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가로채는등 3차례에걸쳐 1백73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강물에빠진 3살조카 救한 11살少女 안타깝게 溺死

【釜山=聯】 19일하오5시10분께 경남金海郡進永邑 봉암1구 西洛東江변의 강물에서 金元子씨(22·進永邑봉암1구220)의 장남 金성용군(3)이 빠져 허우적거리는것을 부근에서 빨래하던 金군의 이모 金숙子양(11·부산北區甘田洞1-14)이 발견、물속에 뛰어들어 金군을 강변으로 밀어내 살려놓고 자신은 물에빠져 숨졌다。

1개월전부터 조카인 金군집에서 집안일을 돌보아오던 金양은 이날 金군을 데리고 함께 빨래하러 강변에 나왔다가 金군이 실족、강물에빠진것을 보고 이를 구해낸뒤 자신은 변을당했다。

綠地 住居地로속여 3千萬원상당 편취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0일 자연녹지를 주거지라고 속여 3천만원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金貴東씨(45·어·경기楊州郡東豆川邑生淵1里467의1)등 4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받은 경기漣川郡全谷面서기 南今雨씨(23)등 5명을 사기와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씨등은 지난해7월 토지소유자인 金德鎭씨(62)、南씨와 짜고 녹지 1천7백77평(싯가2천만원)을 싯가1억여원의 주거지인것처럼 가짜부지증명을 발급받아 같은해10월 서울永登浦區文來洞26 구성철강사장 박갑진씨(27)에게 근저당을 잡히고 현금3백만원과 2천7백만원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6代독자 유괴 20代여인 검거

憲錫군(6) 유괴범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金成子양(22·전남潭陽郡南面柯岩里)이 20일 하오2시20분 전남光州市陽1洞5街5의42 최양진씨 집에서 경찰에 검거돼 이날밤10시 서울로 압송됐다。

李양은 이날 전에 가정부로 일했던 崔씨집에 숨기위해 왔다가 잠복중이던 서울九老경찰서 형사계 尹龍德순경(38)등 2명에게 붙잡혔다。

◇검거된 金成子

수거백신 1병 有效기간넘어 장티푸스接種사고

【江陵=聯】 鉉岩중학교 장티푸스 집단부작용사고를 수사중인 春川지검 江陵지청 徐鳳圭검사는 20일 충격불로 감정의뢰한 백신 29병가운데 1병이 유효기간을 50일이나 넘긴채 보관되어 왔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문제의 백신 1병은 三陟郡長省邑사무소 보건요원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제조일자는 79년7월17일 유효기간은 81년3월20일로 표기된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원호誠金 1千萬원 三都物産 本社기탁

三都物産주식회사 金萬重회장(사진)은 20일 원호성금으로 써달라고 1천만원을 한국일보社에 기탁했다。

이번엔 할머니自殺

"공부 방해"며느리 구박을 悲觀

19일상오9시15분께 서울道峰區孔陵2洞220 李모씨(38·노동) 집 전넌방에서 李씨의 어머니 金點禮씨(71)가 극약을 마시고 숨져있는것을 세들어사는 白선씨(29·행상)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金씨는 손자3명과함께 안방에서생활해왔는데 며느리가 「할머니때문에 아이들이 TV만 보며 공부를하지않는다」고 불평을 한뒤 李씨부부가 쓰던방과 방을 바꿔버리자 가족들과 이야기도 하지않고 침울하게 지내다가 가족들이 집을나간새 자살했다는 것이다。

단비 흠뻑…益山 91mm

내일부터 장마、水害대책도 세워야

夏…至…

21일은 夏至。 이날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곳이 많겠으나 강수량은 적으며 최고기온은 예년과비슷한 27도의분포를 보이겠다고 중앙관상대가 예보했다。

한편 무더위끝에 지난19일부터 20일상오까지 전국각지에 내린비는 모내기를 마친 논과 밭작물을 흠뻑 적셔주었는데 전북益山郡咸悅邑은 20일상오10시현재 91·3mm로 올들어 전국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충남論山은 80·7、전북群山이 64·4、茂朱 56·2、충남天安52·6 …등으로 완전해갈됐으나 仁川·水原·부산·春川·東草등지는 흐린날씨에 빗방울만 약간보였다。

그러나 관상대는 22일부터 장마가 시작됨에따라 농민들은 가뭄걱정보다 수해예방에 대비해야 겠다고 말했다。

19~20일 각지역의 강우량은 다음과같다。(단위=mm)

▲서울=3.6 ▲仁川=0.3 ▲淸州=19.6 ▲瑞山=7.8 ▲大田=56.7 ▲江陵=12.8 ▲春川=18.2 ▲束草=3.1 ▲群山=64.4 ▲全州=7.6 ▲光州=9.6 ▲木浦=15.2 ▲麗水=4.9 ▲濟州=0.9 ▲大邱=12.1 ▲浦項=16.6 ▲蔚山=8.7 ▲부산=1.6 ▲忠武=4.4 ▲晋州=5.5 ▲蔚珍=4.9

稀貴물고기「버지스」발견

西歸浦、모두 2백96종棲息

【西歸浦=聯】 濟州도연안에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않았던 희귀물고기 28종등 모두 2백96종의 각종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진흥원 濟州지원이 올들어 도내 연안과 하천의 물고기서식실태를 조사한결과 南濟州郡西歸浦앞 문섬주변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류도록에 기록돼있지도 않은 희귀어종 버지스(VIRGIS)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등 바닷물고기2백71종、담수어25종등 모두 2백96종이 서식하고있음이 확인됐다는것。

버지스란 바닷물고기는 日本東京근해에서만 서식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조사에서 우리나라에도 대량서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濟州도연안에는 수산계에 발표되지않았던 ▲전자리상어 ▲황줄바리 ▲밀멜 ▲도로바리 ▲정경이등 25종의 희귀물고기가 자라고있으며 西歸浦天池淵하류에도 지금까지 서식실태를모르고있던 찬붕어와 메기등이 서식하고있는 사실이 새로 발견됐다。

화장실에 主婦시체 家出신고 7일만에

【仁川=聯】 19일상오8시께 仁川市東區花平洞525 文新德씨(73)집 화장실에 가출신고로 7일째나 찾고있던 가정주부 韓明禮씨(44·서울永登浦區堂山洞1가)가 숨져있는것을 본동거인 張仁和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韓씨는 흰색바탕에 체크무늬의 치마、흰블라우스차림에 현금5만원과 주민등록증을 갖고있었다。

韓씨는 간경화증과 정신분열증세로 앓고있었는데 지난12일 가출、경찰이 소재를찾고있었다。

겹겹秘密…「골드·붐現場」

金캐는 漢江「外部人접근금지」를 뚫고…

어둠속 접근…人夫10여명 둘러싸

水質검사원 위장 採取작업 확인

本社 方旼俊기자「박쥐取材」48시간

◇砂金에 쏠린 눈…… 砂金캐기에 정신을 잃고있는 골재채취선의 한인부。 큰 플래스틱 함지박에 마대에서거둔 砂金이섞인 모래와 물、수은을 뒤섞어 砂金을 골라내는 작업에 열중하고있다。

말로만 전해들어왔던 「노다지의 현장」을찾아갔을때 처음 느껴진 기분은 공포였다。 알게 모르게 일대에는 살기같은게 떠있는것 같았다。 「노다지」를 독차지 하려고 사금 채취업자들이나 인부들이 「외부인의 접근」을 결사적으로 막고있다는 인상에 우선 압도돼 버렸다。 그들의 표정은 무엇인가 큰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감춘 사람의 표정、바로 그것이었다。 현장에 접근하는 순간 10여명의 사나이(인부)들이 날카로운 눈매를 한채 말없이 기자를 에워쌌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골재채취현장을 취재하러왔다』고 둘러댈수밖에 없었다。 그뒤로 기자는 박쥐처럼 심야에 조용히 흐르는 한강위에 보트를 띄우고 야간취재를 조심스럽게 펴가며 황금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취재수첩에 메모해갈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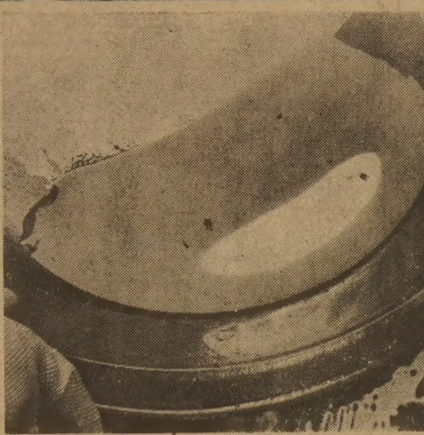
漢沙里와 德沼里가운데를 흐르는 한강변엔 짙은 어둠이 깔렸고 골재채취선과 선별기에서흘러나온불빛으로 그야말로 불야성이었다。 기계소리와 자갈이 떨어지는 소리로 귀가 멍멍해졌다。

기자는 채취선이 있는곳을 찾아 서서히 노를저어갔다。 거대한 채취선의 그늘밑을 용케숨어들었을때 우람한 체격의 인부가 기자를향해 뭐라고 소리쳤다。 소음으로무슨소리인지는알아들을수 없었지만 기자는바로 내젓는 인부의손과 부라린 눈으로보아 접근하지말라는 뜻인줄 알아챘다。 기자도 변명비슷한 소리를 친뒤 보트를 뒤로뺐다。 하지만 짧은순간사이 모래와자갈이 쏟아져내리는 홈통 밑바닥에 철망이 깔려있음을 확인했다。

다시 다른채취선을 찾는다。 1km에 이르는 강위를 두번이나 왕복하며 구석구석에박힌 채취선을 찾았으나 모두 접근을 거부했다。 취재에 나설때 각오는 했었지만 섣불리 건드리다가는 큰일나겠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만48시간의 박쥐취재끝에 취재는 극적으로 풀렸다。 노란 헝겊에 싸인 어른 손가락만한 사금덩어리를 목격할수 있었던 것이다。

황백색의 광채를 내며 빛나는 사금덩어리를 봤을때 취재팀은 흥분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水銀에 빨려든 砂金 함지박에 담긴 물과 수은덩어리。(흰부분) 물속의 모래에 섞여있던 砂金가루가 수은으로 모두 빨려들면 수은을 건져내고 수건에 담아 짜면 번쩍이는 砂金덩어리가 나온다。

深夜6백m 포복 人夫숙소통과

金가루 묻은 채광裝備 만져봐

20일 상오11시 취재팀은 보트를 타고 德沼앞 한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이미 20분전에 한청년이 골재채취선에서 마대를 수거、모터보트에 싣고 가는것을 확인한뒤라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마대를 실은 모터보트가 취재팀이 탄 보트를 앞질러 인적이 드문 작은 섬에 닻을 내렸다。 보트에서 20대의 청년과 60대의 할머니가 섬을 내린뒤 풀숲에 마대자루를 보트에서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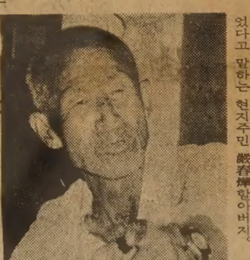
기자는 노를 젓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렇게도 찾던 「현장」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게 흥분할순 없었다。 다잡은 광을 사소한 실수로 놓칠수는 없는일。

강변을 따라 상류로 오른 기자는 「현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뱃머리를 올려놓았다。

기자가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질렀다。


◇「50년前」을 증언 50년전에도 일대에서 砂金캐기가 성행했었다고 말하는 현지주민 嚴春燁할아버지。

어른 손가락만한 黃白色덩이

不夜城뚫는 기계소리 자갈소리에 귀멍멍

『수질이 형편없는데요』 수질검사를 나온 사람처럼 행세한것이다。 60대 할머니는 이내 경계자세를 풀고 『아유 말도마세요』라며 손가락으로 강변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설명을 귓등으로 들으면서 기자의 눈은 지름50cm 크기의 함지박안에서 물과 모래와 섞여 있는 수은덩어리를 보았다。

한참 할머니와 수질오염에 대한 애기를 나눈기자는 넌즈시 핵심을 접근해갔다。 『별로 안나올텐데요、30~40년전에는 꽤 나왔다던데』 기자가 사금채취사실을 거의 알고있다는투로 애기를걸자 할머니는 의외로 쉬게 애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기자가 한강에서 사금을 캔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에 나선것은 18일 낮12시。 현장에 도착한 기자는 채취현장을 가는 길목을 찾았다。 입구에는 초소가 있었다。 초소의 청원경찰이 앞을 막았다。 그에게서는 아무말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德沼里일대를 돌아다니며 단편적인 사실을 주워모은기자는 18일밤10시 漢沙里채취현장으로 직접 쳐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장애물이 나타났다。 10여명의 인부가 트럭에서 말없이 뛰어내리던 기자를 에워쌌다。 눈빛들이 유난히 험상궂다고 느껴졌다。

한참 실랑이 끝에 『밤을세워 일하는사람들을 취재하러왔다』고 몇번이고 설명하자 30대의청년이 『따라오라』고 신호했다。 10톤트럭 뒤를 기자가 탄 승용차가뒤따랐다。

채취선의 선별기를 구경시켜줬으나 사금에대해선 말을 꺼낼수 없었다。

德沼里로 돌아왔을때가 19일 새벽2시。 쉬고있는 채취선으로접근해봤다。 목적붙은 자갈밭을지나 6백m거리에 있었다。 포복이 시작됐다。 기자는 1개의 청원경찰 초소와 2개의 인부숙소를 무사히 통과 채취선홈통에 설치된 마대와철망을 확인할수 있었다。 사진을찍고 철수했을때는 몸은식은땀으로 젖어있었다。

다시 기자는 다른지역의 초소를찾아 청원경찰에게 술을 권했으나 얻은것은 없었다。 청원경찰이나 채취장인부들은 쉬쉬하고있지만 德沼주민들은 「알고있는비밀」이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살아온 嚴春燁씨(82·德沼4里476)에 의하면 50년전부터 漢沙里에서 사금이나와 3~4백의 주민들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사금채취에 나섰다는것。 嚴씨는 『주민들이 강건너 漢沙里에서 서너달씩을 지내며 금을 캤는데 하루평균 5푼에서 1돈은 건졌다』고 말했다。 7~8년 전에도 八堂里 아래쪽에서 사금을 캐는사람이 많았고 장마가지나고나면 강가에서 나무뿌리를 뽑으면 사금가루가 묻어나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경기楊平郡과 충북中原郡可金面牧溪里등 남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골재채취한 웅덩이에서 주민이 사금을 채취、한사람이 하루에 반돈정도를 캐왔다는것。

그런데도 이것이 방치돼왔다는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수없다。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247-9347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SINGER
미싱계의 왕 싱거!
스페샬 MACHINE & 캐비넷포함
ONLY $249.99
바느질 배우는 낮과 저녁반 코스를 제공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싱을 취급합니다.
TRADE-IN도 합니다.
CALL: MR. ARMAND
620 BLOOR ST. W. TOR.
(킹스카메라 건너편)
☎: 537-4881 or 537-3841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진 씨 안 경 점
각종 안경류와 콘택트렌즈 전문, 소프트 콘텍렌즈 90달러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 영업시간 ●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AM
※ 이 광고를 가지고 오시는 분께 20% 할인해 드립니다.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e
210 Bloor St.W. Tor. Tel: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10시7시
일요일: 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534-2003

三國志 (163)

글·高羽榮·그림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㊷

育種의 노래作詞

硏究決意 흔들리면 읊으면서 姿勢가다듬어

유럽의 충격은 우리나라가 모방만해서는 모자랄 교훈이었으며 우리들의 사명의식을 자극했다. 깊이 되씹을수록 분노가 솟어올랐다. 결코 그들나라에 뒤질수없다는 결의로 흥분이 고조되었다.

국내 육종사업과 조림사업이 잠시라도 정체되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나는 국내육종사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서울대농대 구내에있던 중앙山林연구실을 임업시험장 육종지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과 인원을 늘렸으며 실험실과 교배 온실의 규모도 확충해갔다.

이와함께 스웨덴의 선발육종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한편으로 유럽순방길에 교분을 맺은 학자와 연구소를통해 연구 정보와 종자나 나무를 교환했다.

실험실은 우리 연구진들의 숙소나 다름없었다. 밤낮이 없이 沒我의 경지로 빠져들었다. 리기테다소나무나 은수원사시같은 신종나무의 出産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그 몇년동안은 내가 가장 짧은기간에 가장많은 열정을 쏟았던 시기로 내 일생을 후회스럽지않게 해준 기간이기도 할것이다. 하나의 자극이 나를 그렇게나 흥분시킨 채찍이 될줄은 미처 예상도 못했던것이다.

이같은 정열을 더욱 加鞭하고 동료들의 사기를 높이기위해서는 육종의 노래가 필요할것 같았다. 틈틈이 歌詞를 짜내고 다듬어 봤다.

一、七寶山 넘어드는 精氣의 바람에
붉은흙 무르익는 내음새 풍기며
푸른솔밭 넘어드는 造化의 바람에
가지각색 나무꽃이 향기를 풍긴다
정열과 의지의 연장을 둘메고
동지여 오늘도 일하러 갑시다
육종 육종 임목의 육종은
하늘이 우리에준 사명이라네

二、하늘서 뻗어오는 햇볕을맞받아
눈부신 온실속엔 미류꽃 만발코
밤하늘 궤밝히는 형광등 불밑엔
고요히 묘목들의 생명을 지킨다

三、아지랑이 끼어드는 검푸른 솔밭엔
교배대 씌워묶는 소리도 요란코
가을볕에 말라트는 솔방울 틈에선
創成의 새씨앗이 퉁기어 나온다

四、창공에 솟아오른 秀型木 위에선
접가지 따는소리 찬공기 흔들며
채종림에 이루어진 조화를 찾아서
씨타는 처녀들의 모습도 예쁘다

五、적막한 깊은밤 無菌室 동밀엔
胚芽따는 해부칼 분주히 움직이며
하얗게 단장한 庇蔭室 그늘엔
조화의 倍數體가 가득히 차있네

六、생명의 그윽한 비밀을 밝히고
조화의 기묘한 방법을 배워서
내일의 산림을 우리의 힘으로
보다더 더낫게 만들어 봅시다.

七、말하라 거친산 가꿀자 누군가
희망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서
사명에 살려는 육종의 용사들
높고도 귀하다 우리의 사명。

감히 육종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 이같은 가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이 가사엔 곡이 붙여진것도 아니다. 곡을 붙일만한 값어치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누구의 손질이나 평을 받아본적은 더욱없다. 다만 내 자신에대한 결의의 다짐으로, 좀더 희망을 가져봤다면 연구진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반인들에게 육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밖에 없었다.

그동안 조용히 감춰 두었던 이가사를 새삼 펴놓고보니 어쭙잖은 구성이고 내용이다. 그러나 그때의 내 의지나결의 그리고 감정만은 그대로 담겨진것같아 그것만으로 자위하고 있다.

流星의 賦 <111>

李炳注作
李友範畵

紀昌의 길 ⑳

진 침묵이 있은 후 율곡은 입을 열었다。

『세가지 길이 아니 네가지 길이라고 할까。산(産)、문(文)、무(武)…』

여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가

『반(反)』

이라고 덧붙였다。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식산(殖産)에 전념하는 길이 있지 않겠소。개간을 하여 농토를 넓히고 양축(養畜)을 하여 산(産)을 늘리고 광(鑛)을 찾아 재(財)를 만들면 반상귀천(班常貴賤)에 불구하고 장부의 면목을 세울수 있을 것이오』

김달손이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대감、상민과 천민이 식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만가의 재물을 가졌다 하면 양반이나 관(官)의 노략질을 당하는 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믿사옵니다만』

『난들 왜 그런 사정을 모르겠소。하나 홍소년은 가문 안에선 어떤 천대를 받을지 몰라도 치산한 파일을 보전할수 있을만큼의 울은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겠소。아무려나 남양홍씨의 가문에 속하는 사람인데 관이나 외인이 침범할 수가 있겠소?』

『듣고 보니 그러 하옵니다만 홍소년에게 식산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소이다』

『나도 그런 짐작이오。순서를 따라 말을 한다면 식산의 방도도 있다는 얘길 뿐이오。다음은 문(文)의 길인데、학문을 출세와 사관(仕官)의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오직 학문자체를 숭상하는 정진은 반상귀천과는 관계없이 해나갈 수 있지 않겠소』

『대감、그것도 어려운 일인가 하오이다。틈을 아껴 호학(好學)하는 버릇은 기를 수 있을망정 대유(大儒)가 된다는 건 어림도 없읍니다。사랑방 하나 차지하지 못할 주제에 어디에다 책을 펴놓고 학문을 하겠읍니까』

『김공이 옆에 있지 않소』

『저로 말하면 홍소년을 받들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 삼년으로서 끝나지 않을까 하오이다』

『그렇다면 길은 오로지 하나일 밖에 없소。훌륭한 무인(武人)이 되는 길이오。들으매 무술에 소질이 있다고 하니 무인으로서 대성을 기할수 있지 않겠소』

『무인이라면 독불장군이 아니겠소이까。남의 신하가 되어 차츰 영진하여 많은 신하를 거느려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어디 당치나 하는 일이겠소이까』

『그러나 문(文)의 길과는 달리 무(武)의 길은 기량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어 우열(優劣)이 선명할 것이 아니겠소。반상귀천관 관계 없이 장부의 기개를 펼수 있을 것이오。그럴 때가 반드시 있으리다。김공、홍소년을 좋은 무인으로 기르시오』

『반상귀천의 구별 없이 무인이 무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을 날이 언제나 있게 되겠사옵니까』

달손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토했다。

『그렇소。아닌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어렵소。쓸데없는 버릇과 곰팡내 나는 공론(公論)으로 양궁(良弓)을 썩이고 양옥(良玉)을 사장(死藏)한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오。그러나 기필 때가 있을 것이오。그런때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시화 등불

여름밤을 식히는
노래·만담의 향연
7월3일(금) 하오7시30분
센트럴·테크니칼·스쿨
(베더스트×하보드)

7월1일은 카나다의 생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축하합시다

카나다! 우리들의 날입니다.

다함께 카나다의 날 하루를 기념하는 기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축하합시다.

여러분은 아직도 파티를 계획할 시간적 여유가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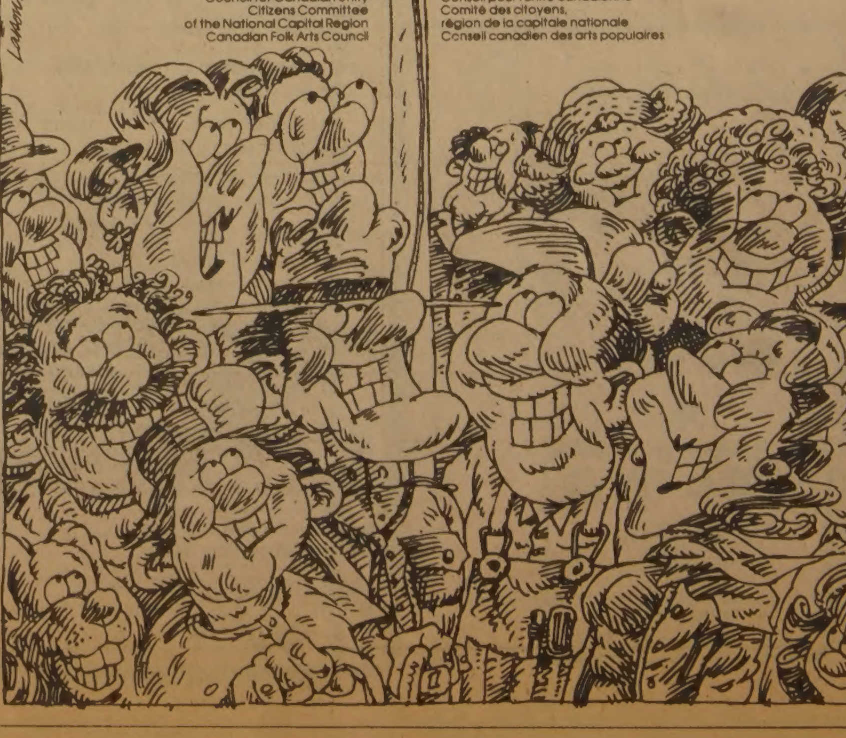
─가족, 친지, 전 이웃들이 다함께 모입시다. 백사를 제쳐놓고 이 피그닉을 가집시다. 케이크를 마련해서 114개의 촛불을 불어끕시다.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합시다. 뉴파운드랜드로부터 부리티쉬 컬럼비아와 테리토리에 이르는 2천4백만 모두의 소망이 말입니다.

카나다의 날을 우리의 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시다.

CANADA'S BIRTHDAY, JULY 1ST
Council for Canadian Unity
Citizens Committee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Canadian Folk Arts Council

1ER JUILLET, LA FÊTE DU CANADA
Conseil pour l'unité canadienne
Comité des citoyens,
région de la capitale nationale
Conseil canadien des arts populaires



IATA

천우여행사

◉ CP 항공 (뱅쿠버 경유)
◉ 대한항공 매일
◉ 뉴욕경유(귀로에는 L.A. 경유할 수 있음)
◉ JAL 주 3회

대표 김현두

Ⓑ928-3335
Ⓡ651-8081
720 Spadina Ave. Suite 104
HERALD TRAVEL SERVICE LTD.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話)

"여보, 당신은 어떤조건에서건 나를 사랑할수 있소?" "물론이죠"
"내가 실직해서 돈도 다 떨어져 완전한 놈팡이가되면 어쩌겠소?"
"그래도 날 사랑하겠소?"
"그럼요. 제가 어디에 있든간에 편지는 띄울께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善隣 冲岩 꺾고 決勝에

朴魯俊 홈런등 冲岩 따돌리고 慶北과 爭覇 9-4

청룡기野球

善隣商이 2連覇할것이냐, 慶北高가 6년만에 패권을 탈환할것이냐.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야구선수권대회 고등부 패권의 향방은 21일하오1시兩強의 한판승부로 판가름나게됐다.

◇先制 2點홈런

善隣商1회초1死후 3번 朴魯俊이 우월선제2점 홈런을 터뜨리고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홈으로들어오고있다.

善隣商은 20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11일째 冲岩高와의 준결승전에서 7회말 대량실점, 4-4로 쫓겼으나 8회초1死2루에서 1번좌타 金雄大가 좌중간적시타로 결승점을얻어 9-4로 승리했다. 善隣은 1회초 3번 朴魯俊이 우월선제 2점 홈런을 날리고 4、6회초 1점씩을 보태 4-1로리드하며 우완金健友、좌완朴魯俊(6회)의 계투로 승리를 다지려했으나 冲岩은 7회말 포볼3개로만든 2死만루의 찬스에서 2번南在昱의 주자일소 좌중월적시2루타로 극적타이를 만들었었다.

慶北은 67년 대회첫패권을 잡은이래 68·71·74·75년 헤결쳐 다섯차례 우승한바있으며 善隣商은 69·80년에 각각 정상을 차지했었다.

善隣은 9회초에도 적실과 1번 金雄大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한뒤 계속된 2死만루에서 朴魯俊이 주자일소 우월적시 2루타를 터뜨려 9-4로승세를굳혔다. 朴은 이경기에서 6타수3안타 5타점을기록했다.

◇제11일전적
▲준결승
선린상 200 101 014 — 9
충암고 000 010 300 — 4
▲홈런=朴魯俊(1회초 2점·선린)

世界주니어陸上 金鍾鎰최우수選拔

제4회멕시코주니어육상대회 남자 멀리뛰기에서 우승한 金鍾鎰(청주고)이 출전 24개국 3백여선수중 최우수선수로 선발됐음이 선수단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金은 7m98을 기록、이대회기록 7m72보다 26cm나 더 뛰었으며 2위인 中共의 탄아톤·타이가보다는 19cm나 앞섰다는것.

한편 3명의 선수가 출전 3개의 金메달과 1개의 銀메달을 따낸 한국선수단은 우수육상국가로 선정돼 상패를 받기도했다.

徐長雲우승 小口徑3자세

봉황기 全國사격

徐長雲(사격지도단)은 20일 泰陵종합사격장에서 폐막된 제11회 봉황기쟁탈 전국사격대회 소구경 3자세에서 1천1백52점(1천2백점만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공기권총에서는 金良子(기업은)가 3백7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중공기소총에서는 姜惠子(제주표선)가 3백78점의 호기록으로 수위에 올랐다.

시도대항종합점수경쟁에서는 서울이 지난해에 이어 우승, 2연패를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종목별1위>
▲시도대항종합=서울 14、998 ▲소구경3자세=서장운(지도단) 1、152 ▲센터파이어권총=양충열(지도단) 588 ▲스탠다드소총여자=김영미(한일은) 568 ▲사회단체공기권총=국민은 1、501 ▲동개인=김양자(기은) 376 ▲동개인남자=안광춘(국민은) 569 ▲남중공기소총단체=제주함덕 1、112 ▲동개인=이상고(함덕) 376 ▲동여중단체=박문여중1、100 ▲동개인=강혜자(제주표선) 378

東亞建設(여자단체) 中共과 쟁패

全美오픈 卓球

【프린스턴(美뉴저지州) 20日=方錫鎬특파원】한국의 東亞建設여자탁구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이곳 프린스턴대학체육관에서 벌어진 81년도 全美오픈탁구선수권대회 3일째 여자단체 준결승에서 安海淑·黃男淑의 활약으로 미국I팀을 3-0 스트레이트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20일 최강 中共과 패권을 겨루게 되었다.

세계선수권챔피언 童玲과 張德英으로 짜여진 中共여자팀은 이날 캐나다를 3-0으로 완파했다.

第一合纖 남자팀은 남자단체 준결승에서 金浣·金琦澤·劉時興이 분전했으나 다양한 서브와 놀라운 파워·드라이브를 가진 中共에 3-0으로 석패, 3、4위전에 나가게 됐다.

세계선수권복식챔피언 두 왼손잡이 蔡振華 謝賽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강속드라이브와 스피드를 구사하며 스트레이트勝을 거두었다.

태극기를 손에 든 한국교민들을 비롯해 경기장내 관중들은 韓·中戰의 수준높은 플레이에 환호와 갈채를 보냈다.

◇제3일전적
▲여자단체준결승
한국 3-0 미국I
安海淑 2 (21-12, 21-6) 0 더든
黃男淑 2 (21-16, 21-10) 0 비펀
安海淑·黃男淑 2 (21-5, 21-12) 0 비펀·도허티
中共 3-0 캐나다
▲남자단체준결승
中共 3-0 한국

全海一 KO승

프로복싱新人王戰

프로복싱 81년도 전기신인왕선발전이 20일 文化체육관에서 속행, 웰터급 全海一(원진준호)은 깨끗한 왼쪽스트레이트와 좌우훅을 터뜨려 일방적인우세를 잡은끝에 柳炯鎭(해태)에 4회47초만에 KO승을거두었다.

가수沈守峰 7월에結婚 心靈연구가 韓基錫씨와

◇지난 5월 약혼을하고 오는 7월중에 결혼하는 沈守峰과 韓基錫씨.

「그때 그사람」을불러 인기가도를 달렸던 가수 沈守峰(27·본명 沈玟卿)이 자신에게 심령과학을 가려쳐준 韓基錫씨(34)와 오는 7월중에 결혼한다.

沈守峰은 지난5월17일 韓씨와 약혼식을 가졌으며 결혼준비를 위해 요즘 연예활동을 중단하고있다. 沈양이 韓씨를 처음만난것은 79년11월, 沈양의 어머니 張亭福씨(56)가 평소 심령과학에 관심을 보여온 딸을위해 「4次元세계의 신비」라는 책을 낸 張씨를 소개해주면서 였다.

그러나 沈양이 심령과학에 너무 심취하자 두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으려 했는데 이같은 가족의 반대가 그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韓基錫씨는 부인과 남매를 두고있으나 심령과학을 이해하지 못해 뜻이맞지않아 부인과 작년9월 합의이혼했으며 얼마전 집필하기 시작한 심령과학에 관한 책을 탈고단계에 있다고한다.

광고문의
533-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921-0624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흰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 수실분 구합니다:
미세스 하
☎ 665-4853

어린애 셋(10, 9, 8살) 돌보실 분
월~금까지, 교육에 이해 있으신분, 월 $300~$400
추천서 필요.
CALL: 오후6시~9시30분
☎: 742-4776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630-7777 LOUIS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362-2300

한 국 관
웨이트레스 1명, 웨이터 1명
☎: 536-029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입주하셔서 할머니 돌봐 주실분 구함
☎: 531-7556

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므로 딸내 가사와 아기 돌보아 주실분 구함
☎: 231-4905, 368-5425(B), 236-1253(딸)

밤에 근무할 풀타임 디쉬워셔 구함
(CALL 오후3~5시)
☎: 486-1112

쥬스 & 샐러드 바에서 헬퍼구함
☎: 368-9206(오후2시이후)
438-0403(집)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781-7080 458 CALEDONIA RD.

벡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924-7696 미스타 리

가게매매: 주매상 $4200, 좋은렌트 좋은 리스
☎: 1-579-4451

가게매매: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제인×웨스턴)

몬트리올 영어지역 스토아 매매:
주매상 $6000~6300개런티, Asking $60000+스탁, Cash $55000이상, 맥주와 와인 취급하며 배달 없음. 주위에 새로운 빌딩 건설중임
☎: 1-514-486-0944

스토아 매매: 주$4000, 가격 $23000+스탁
120 LAKESHORE RD. E.
HWY 10 & LAKESHORE RD.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작은 케네디언 레스트랑 급매: 이익좋음
☎: 251-1908(오후2시~7시)

스토아 매매: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1550 BLOOR ST.

그로서리 가게매매(경쟁없음): 주매상 $4500이상, 리스5년+옵션5년, 렌트 $995(윗층살림집5개룸포함) Askig $42000
9 KINTYRE AVE. TORONTO, ONT.

픽업 세탁소 SET UP하실 분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아주 싼 값에 팝니다.
☎: 48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SET UP사실분
렌트 $350, 리스6년+6년 옵션
☎: 465-6247 JACK PONG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해밀톤지역
VOLUME 30만불(1년)
☎: 528-0818 CALL ANNA OR TONY

TUCK SHOP양도: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주매상 $4400, 권리금 $39900,
100 CAVELL AVE. at Royal York Rd. ☎: 252-7982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275
☎: 635-1038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샵 급매
다운다운지역
☎: 535-2804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주매상 $4500이상, 리스3년+5년 옵션
☎: 769-5956 3261 DUNDAS W.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브램 NEW STORE PLAZA안에 위치
주매상 $5500+ 로타리오 TICKET SALE(월 $15000)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855 JANE ST. TOR. ONT.

맥스밀크 양도: 년매상 34만불 상하, 상하, 년순이익 4만불 상하,
재고 2만5천불 상하, 권리금3만5천불,
리스8월10일 1984, 옵션10년
600 The East Mall Rd.(East Mall Rd. at Rathburn Rd.)
☎: 622-6155, 762-1264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총 남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크리스티미용실(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휜치×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769-0609 여 정 웅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타일•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8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조율 액손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 김 수 웅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추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각종냉장고(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4304, 469-3341 박 기 창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기 타

BEAR PAWS, GOAL BLADDERS
웅담 팝니다. ☎: 463-3572
오전10시~오후7시(월~금)

사람을 찾음: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 애틀 ☎: 1-206-329-5903

여행사관광 코스(학교)가르칩니다.
7월과 9월에 코스가 시작되며, 낮반과 저녁반이 있읍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363-3286으로 전화하십시요.
바트리 INSTITUTE OF TRAVEL
MR. ZONENBERG

집안에서 손으로 하는 크로켓이나 뜨게질하는데 경험있으신분 찾고있읍니다
샘플을 보고 그대로 만들수 있는 분 원합니다.
관심있으신분 FRAN에게 연락바랍니다
☎: 884-626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12.00, $10.00

〈입장권 예매처〉

●본 사 ●한 국 관 ●고려식품 ●단풍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서부, 본점〉

주최 : 한국일보사